Vol.143 2017 January / February

Special theme

앞서가는 연구로 내일을 밝히다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



한양대학교의료원
HANYANG UNIVERSITY MEDICAL CENTER

새해에도 건강한 당신을 응원합니다



한양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김 경 헌

김경헌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붉은 닭의 해'라고 합니다. 예로부터 닭은 새벽녘 동이 터오르는 것을 가장 먼저 알리는 동물로 부지런함과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러한 신년의 특성을 이어받아, 올 한 해 한양대학교의료원을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활기차고 좋은 기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017년을 맞아 첫 번째로 발행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 1+2월 호에서는 미래의학을 선도하는 한양대학교의료원의 마지막 테마로 작년 한 해 동안 끊임없는 연구로 의학계의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해 노력해온 우리 의료진들의 성과를 담았습니다. 이중에는 당장부터 현장에서 활용되며 환자들에게 좋은 효과를 가져오는 치료법도, 향후의 거듭된 연구를 통해 더 나은 가능성을 불러 올 수 있는 성과도 있습니다. 당장의 치료와 돌봄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의학에 대한 투자라는 생각으로, 늘 공부하고 탐구하는 자세로 연구중심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 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권역응급의료센터로서의 준비를 마친 한양대학교병원이 올해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24시간 상주하며 응급상황에 대비하는 전문의와 함께 인적, 물적 성장으로 권역 내 어떠한 응급 환자도 안심하고 오실 수 있도록 변모한 한양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달라진 모습을 이번 호 한양토픽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오면 늘 다짐하는 목표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건강관리일 것입니다. 건강할 때는 늘 건강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지만 잃고 나면 다시 찾기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천천히, 꾸준하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 곁에 한양대학교의료원이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들께 행운이 가득하고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Vol.143 2017 January / February

미래의학을 선도하는 한양대학교의료원 ❻

앞서가는 연구로 내일을 밝히다

2017년 1+2월 호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 스페셜테마에서는 앞서가는 연구로 의학의 내일을 선도하는 한양대학교의료원 의료진의 성과를 소개합니다. 루푸스에 대한 새로운 유전인자를 규명해 치료의 가능성을 열고, 환자의 고통까지 고려한 검사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판별의 길을 넓히며, 마땅한 방법이 없는 뇌졸중 휴우증 환자를 위한 새로운 치료법을 연구하는 한양대학교의료원 의료진의 노력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02 **즐거운 편지** | 새해에도 건강한 당신을 응원합니다
04 **안녕하세요, 선생님** | 조희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안과 교수
08 **Love, Life** | HY 엘로자켓 프로그램

앞서가는 연구로 내일을 밝히다
2016년 한양대학교의료원의 연구성과

14 **루푸스 원인 유전자 발굴로 새로운 치료 가능성 열다** | ① 류마티스내과
16 **한국형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선별도구로 환자를 배려하다** | ② 정신건강의학과
18 **신경재생 연구로 뇌손상 후유 장애를 최소화하다** | ③ 신경과



20 **Hanyang Topic** | 한양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24 **미디어 속 건강주치의** | 낯설지 않은 미디어 속 '성형'
26 **베스트 파트너** | 한양대학교구리병원 협력병원 구리성모안과
28 **Dr. Opera** | 푸치니 오페라 〈라 보엠〉
30 **Dr. Movie** | 혼용무도(昏庸無道)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작은 바람
32 **예술과 의술의 만남** | 에곤 쉴레의 '스페인 독감'
34 **고마운 당신에게** | 하태경 외과 교수님께 보내는 편지
36 **오늘의 건강강좌** | 콩팥이식 환우를 위한 건강강좌
37 **Hanyang News** | 발달장애 아동 의료비지원을 위한 협약식 개최 외
40 **언론 속 한양인**
42 **발전기금**
46 **한양캘린더**
47 **외래 진료 시간표**





발행처 한양대학교의료원 대외협력실 **발행일** 2017년 1월 2일 통권 143호 **발행인** 김경헌 **주소** 04763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1
대표전화 02-2290-8114 **Homepage** www.hyumc.com **기획** 대외홍보팀 02-2290-9532 **편집디자인** 큐라인 02-2279-2209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은 한양대학교의료원에서 펴내는 격월간 매거진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은 한양대학교의료원 홈페이지와 블로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우편물 수령 주소가 변경되신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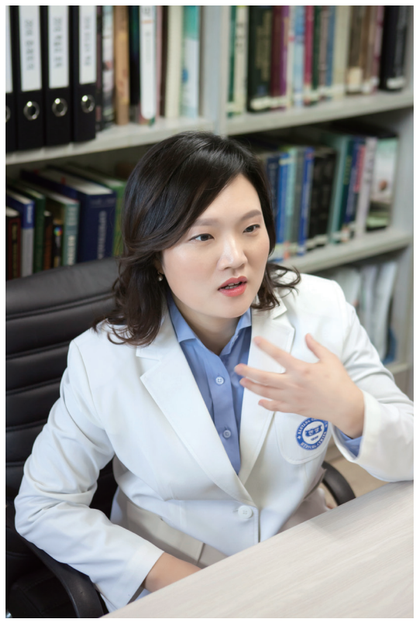
깨끗해진 마음의 창으로 새로운 세상을 선물하는 연금술사

조희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안과 교수

흔히들 눈을 마음의 창이라 한다. 사람을 볼 때
무의식적으로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곳도 바로 눈이다.
조희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안과 교수는 눈 건강이 정신 건강은
물론, 삶의 질과도 직결되어 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
그녀가 누군가의 눈동자를 마주할 때마다 단순히 눈이 아닌,
그 투명한 창 너머의 세상까지 바라보게 되는 이유다.

글. 임지영 사진. 이승헌



"힘들고 아픈 처지를 이해 못하는 의사가 환자의 고통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겠어요. 측은지심을 아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힘들면 누구나 기대고 싶어지는 게 인지상정인데 그럴 때 기댈 수 있는 존재가 저였으면 좋겠어요."

{ 충전된 에너지로 병원을 누비는 '홍반장' }

한양대학교구리병원에서 조희윤 교수를 모르면 간첩이다. 누군가는 '우리 병원에서 가장 목소리가 크고 활달한 의사 선생님'이나 '수술을 가장 많이 하는 의사 중 한 명'으로, 또 누군가는 '모교(한양대) 출신은 아니지만 애교심만큼은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일등 선생님'으로 조 교수를 떠올린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홍보실장에 이어 의과대학 안과학교실 주임교수까지 맡게 된 그녀는 진료면 진료, 수업이면 수업, 홍보면 홍보,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곳이면 빠짐없이 신출귀몰 모습을 드러내는 '홍반장'이다. 그렇다고 업무에 지쳐 기진맥진하거나 숨죽인 배춧잎처럼 축 늘어진 모습을 보이는 법은 절대 없다. 언제 봐도 100% 충전된 건전지 같다. 그 엄청난 에너지는 대체 어디에서 공수해오는 걸까?

"힘들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하지만 원래 스스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 끝까지 저를 몰아붙여서라도 제대로 해내려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사명감이랄까? 그런 건 좀 유별나게 타고난 편이에요. 소중한 저의 세 딸들이 가장 큰 에너지의 원천이라면 원천이고요."

원래 조 교수는 물리학자를 꿈꾸던 공학지망생이었다. 우연찮게 의대에 진학했는데 선택하고 보니 일의 내용이며 성격이 적성에 너무 잘 맞았다. 본과 3학년 때 전공을 안과로 턱 하니 정해버린 데에는 임상실습을 돌던 시절 어느 사시환자와의 만남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른바 '문제아'로 분류되는 학생이었는데 외사시가 있었어요. 성장환경도 불우했지만 사시로 인한 외모 콤플렉스도 심각했죠. 그 아이가 수술로 사시를 교정하고 나서 성격이 완전히 밝아지는 것을 보고 자극을 받았어요. 단순히 눈이 아닌, 인생 교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 망막질환 연구의 새로운 장을 열다 }

사시에 흥미를 느껴 안과를 전공으로 정했는데, 막상 안과를 전공하고 나서부터는 망막이라는 새로운 영역에 매료되었다. 어려운 도전과제라는 점이 더욱 흥미를 유발했다.

"실명유발질환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 가장 흔한 곳이 바로 망막이죠. 노인층 환자도 많고 그만큼 중증질환도 많아요. 시력이 떨어지면 우울증 정도도 심해지는데 그런 분들을 치료할 수 있어서 더욱 보람을 느꼈던 것 같아요."

현재 조 교수가 대표적으로 집도하는 수술은 '유리체절제술'과 같은 망막수술이다. 유리체 출혈로 시력장애가 심해진 경우에 시행하는 '유리체절제술'은 작은 가위와 흡입기를 이용해 유리체와 유리체 출혈 및 망막의 견인, 증식 섬유막 등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망막은 눈 안, 혈관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매력적이에요. 환자의 망막 상태는 물론이고, 망막 혈관을 통해 전신 건강도 살필 수 있거든요."

각종 망막관련 질환들을 연구하느라 휴식마저 고스란히 헌납해온 조 교수는 최근에는 우리나라 3대 실명원인의 하나로 꼽히는 당뇨망막병증, 그 중에서도 당뇨의 고혈당으로 인해 증가한 염증물질로 유발되는 당뇨황반부종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로 인해 생기지만 그 증상이 눈에서 관찰된다는 점이 특이하지요. 그대로 방치할 경우 대부분 아주 심한 시력 감퇴를 겪게 돼요. 실제로 시력을 거의 잃고 보호자의 손을 잡고 병원을 찾은 고령의 환자가 있었어요. 3개월쯤 치료를 받던 어느 날 입술에 삐뚤빼뚤 립스틱을 바르고 오셨는데 시력을 회복하고 자신감을 찾은 모습이 어찌나 감동적이었는지. 의사이자 연구자 입장에서 그런 감동보다 더 힘이 되는 게 없지요."

{ 마음의 눈물까지 닦아주는 의사 되고파 }

3년 전 휴식 겸 재충전을 위해 떠났던 하버드 연수에서마저 그녀는 새로운 연구 일감을 만들어 왔다. 일복과 인복이 동시에 터졌다며 웃는 조 교수는 현재 하버드에서 알게 된 연구진들과 심장질환이나 뇌졸중 위험인자를 안과 진료로 발견, 위험도를 줄이는 방법에 관해서도 공동 연구 중이다.

진료와 연구를 꾸준히 병행한 공로와 안과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인정받아 조 교수는 작년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의 개원기념일을 맞아 '총장상'의 영예를 안기도 했다. 그러나 환자들의 건강을 지키겠다고 나섰다가 혹사당하는 건 언제나 자신의 건강. 주말에 짬이 나면 자전거로 한강을 달리고, 그래도 안 되면 테니스나 아쿠아로빅으로 스트레스를 날린다는 그녀에게 가수 이문세는 '최후의 보루'다. 마사지로도 풀리지 않는 허리의 통증이나 하루를 팽팽하게 유지해온 지나친 긴장 때문에 쉽게 잠을 이룰 수 없는 밤이면 '문세님'의 주옥같은 음악을 들으며 피로를 다스린다.

"올해는 너무 바빠 그 좋아하는 이문세 콘서트에도 못 갔어요. 매년 빠짐없이 참석하던 연례행사였는데 하는 수 없죠. 아무리 문세님이 중요해도 환자들이 훨씬 중요하니까. 우선은 음악을 들으며 서운함을 달래고 내년을 기약하는 수밖에요."

내가 지치면 나를 바라보는 주변인들도 지친다는 생각에 매 순간 스스로를 담금질한다는 조희윤 교수. 그녀의 꿈은 오래도록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의사로 남는 것이다.

"힘들고 아픈 처지를 이해 못하는 의사가 환자의 고통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겠어요. 측은지심을 아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힘들면 누구나 기대고 싶어지는 게 인지상정인데 그럴 때 기댈 수 있는 존재가 저였으면 좋겠어요."

다른 이들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을 때 사람은 강해진다. 동분서주하며 몸이 모자랄 스케줄에도 여유를, 미소를 잃지 않는 그녀의 진짜 에너지의 원천은 바로 거기에 있었다. 눈을 바라보고 눈물을 닦아줌으로써 환자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할 수 있다는 희망 말이다.



환자를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다

HY 엘로자켓 프로그램

눈에 확 띄는 노란색 자켓을 입은 학생들이 한양대학교병원 본관 로비에 모였다. 의사가 되기 위한 기나긴 과정 중 이제 막 첫발을 내디딘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2016학년도 의예과 학생들이다. 앞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병원에서 학생들은 환자를 마주하며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 노력한다. 인성과 품격을 겸비한 의사, 환자를 소중히 생각하는 의사가 되기 위한 이들의 마음이 조금씩 두터워지고 있다. 글. 황원희 사진. 이승헌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성별과 나이는 물론 직업도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아주 얕게나마 대학 병원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죠."

공감으로 깨달음을 얻다

지난 2016년 2월 29일 한양대학교병원과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이하 의과대학)은 2016학년도 의예과 학생들의 봉사활동 프로그램인 'HY 엘로자켓 프로그램'의 협약식 및 출범식을 가졌다. 한양대학교병원 이광현 병원장은 "인성과 품격을 갖춘 의사가 되기 위해선 환자를 소중히 생각하고, 항상 봉사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며 봉사활동의 취지를 설명하고, "대부분의 학생이 앞으로 오랜 시간을 생활해야 할 공간인 병원에 애정을 가지고 봉사활동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HY 엘로자켓 프로그램은 한양대학교병원 사회복지팀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3월 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사회복지팀 강희명 계장은 "외부 봉사활동이 아닌 원내 봉사활동이라는 점에서 학생들에게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학생들이 봉사활동의 취지에 맞게 환자들을 직접 대면하면서 성실하게 참여하고 있음을 전했다.

총 82명의 의예과 학생들은 1조부터 8조까지 약 10명씩 조를 이루고, 수요일 또는 금요일 중 하루 동안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총 4주간 봉사활동에 임한다. 장소는 본관 1층 로비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까지 인력이 필요한 공간은 모두 해당한다. 대부분 업무는 환자를 맞이하는 일로 진료과 위치 안내, 수납 안내 등 환자 안내가 주를 이루며, 진료과의 경우는 침상 정리, 약품 정리 등의 기본 업무를 맡는다.

의예과 학생들을 지도하는 의과대학 의예과장 김현영 교수는 "미래의 의사로서 병원 봉사활동을 통해 스스로 깨닫길 바라는 점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디가 아프거나 불편해서 오신 환자들이 실제로 병원을 이용하면서 느끼는 불편한 점들을 공감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두 번째는 의사뿐만 아니라 환자들을 위해 수고하는 다른 직종의 많은 병원 직원들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가면 좋겠어요"라며 학생들이 병원 봉사활동을 통해 의사로서의 마음가짐을 다잡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병원과 가까워지는 시간

심장내과, 흉부외과, 가정의학과 등이 위치한 서관 4층 로비에는 이준호, 정경서 학생이, 신장내과, 피부과 등이 위치한 서관 5층 로비에는 임민경 학생이 환자 안내를 돕고 있다. 순번 대기표를 어디서 뽑아야 하는지 묻는 어르신의 물음에 학생들은 서툴지만 친절하게 설명을 이어간다.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성별과 나이는 물론 직업도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아주



얕게나마 대학 병원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죠. 그리고 병원의 시스템이 단지 의사와 환자의 관계에 의해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 병리사, 작업치료사 등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이 협력해서 운영되는 곳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서관 4층에서 환자 안내 업무를 맡은 정경서 학생은 봉사활동이 오히려 자신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미리 병원의 분위기를 체험해 볼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 된다고 말했다.

본관 1층은 처음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곳으로, 진료 접수는 물론 진료비 수납, 처방전 발행 등의 업무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곳에 배치된 송정석, 이경미, 이지선 학생은 더욱 분주하게 움직인다.

"본관 1층은 접수와 수납 관련 업무가 가장 많은 곳이에요. 어르신들은 터치스크린 사용이 익숙지 않아서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사소한 일이지만 작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것과 환자의 진료 시작 단계를 볼 수 있다는 것이 뜻깊은 경험으로 남을 것 같아요."

터치스크린 옆에서 환자들을 돕던 이지선 학생은 거창한 일은 아니지만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끼며 환자의 입장이 되어 그들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말한다.

병원을 처음 방문한 환자들을 위해 진료과 위치를 안내하는 업무를 맡은 송정석 학생은 "환자들에게 진료과 위치를 설명해주고, 함께 이동하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병원을 알아가는 것 같아요. 또 병원 내 의사 선생님들을 보면서 앞으로 어떤 의사가 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라며 조금씩 병원에 익숙해지는 모습을 보였다.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2016학년도 의예과 학생들은 여러 진료과에 배치되어 각자의 임무를 수행한다. 본관 3층 MRI 촬영실에서는 장지호 학생이 환자들의 촬영 준비를 돕는다. MRI 촬영을 위해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환자들에게 환자복을 제공하고 안내하는 일이다. 본관 3층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정재훈, 임재우, 전유민 학생이 의약품을 분류하고, 침상을 정리하는 업무를 맡았다.

"학교에서 수업만 들을 때는 알지 못했던 현장의 분위기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응급실에 있으니 의료현장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간 느낌이에요. 어떤 환경에서도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응급실을 처음 방문했다는 전유민 학생은 간접적으로나마 병원 시스템을 경험하며, 좀 더 구체적으로 의사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의사가 되기까지 머나먼 여정의 시작점에 서 있는 2016학년도 의예과 학생들은 HY 엘로자켓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를 만나고, 병원 내 구성원을 알아가고, 자신의 미래를 꿈꾼다. 환자의 상황을 이해하는 의사, 아픈 부분을 공감해주는 의사. 각자가 느끼는 깨달음의 형태는 다르지만, 그 끝자락에 모인 학생들의 미래는 '환자를 소중히 생각하는 의사'라는 공통점으로 존재한다.



Mini Interview



김현영
의과대학 의예과장
한양대학교병원 신경과 교수

"처음 봉사활동을 시작할 때 학생들은 매우 쑥스럽고, 서먹한 모습을 보입니다. 학생들이 접해보지 못한 환경에서 느끼는 당연한 기분일 겁니다. 하지만 환자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낯선 병원에서 익숙지 않고, 서툴러서 당황스러운 환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예비 의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훗날 의사가 되었을 때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도 일방적인 지휘자가 아니라 동료 직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팀을 운영하는 소통하는 지휘자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것들은 모두 상대방을 공감할 수 있는 의사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얼마나 아픈지 공감하고 이를 최선의 진료로 승화시킬 수 있는 소양을 가졌으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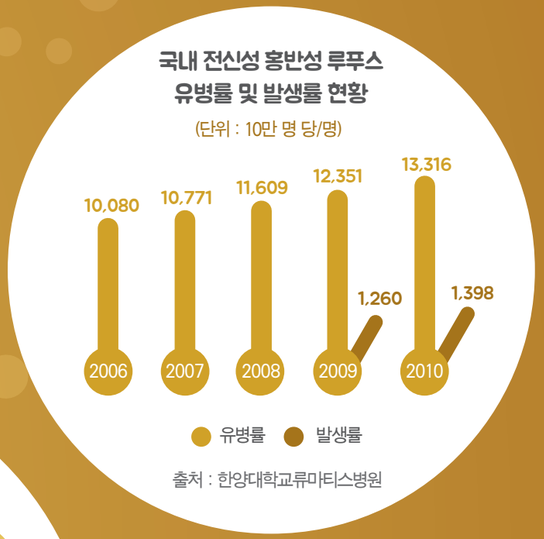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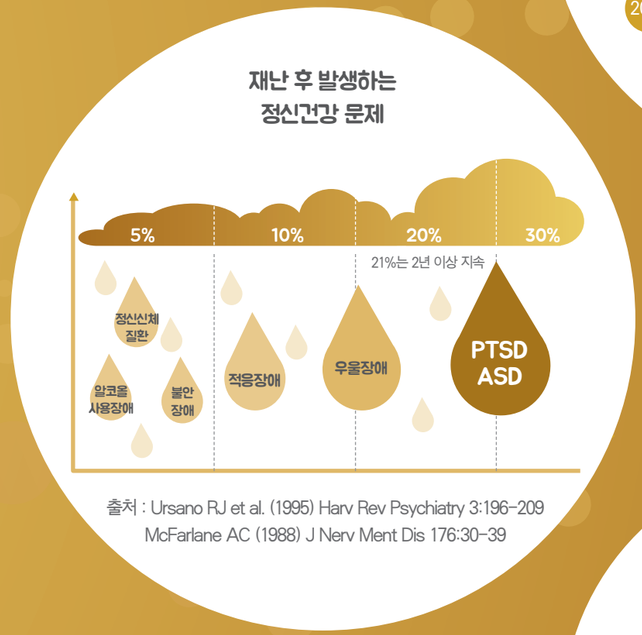
장지호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 2016학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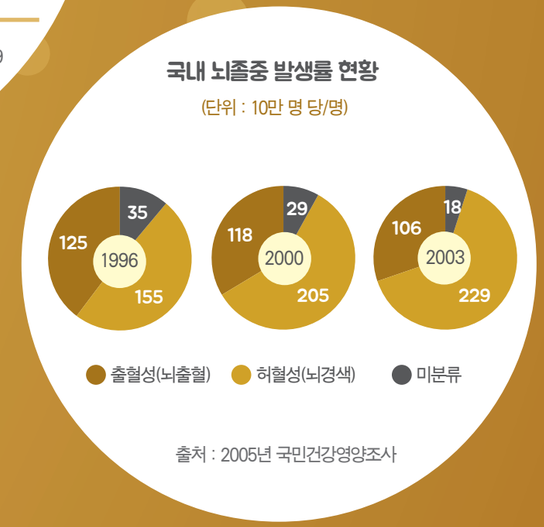
"저희가 배우는 과목들은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이라서 직접 환자를 만나는 일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가 없었어요. HY 엘로자켓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병원에서는 환자들과 어떻게 소통하는지, 실제로 어떤 시스템으로 병원이 운영되는지를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교실에서만 보던 교수님들이 이곳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미래의 제 모습을 흐릿하게나마 그려볼 수도 있고요. 사실 대학병원에 오는 환자들은 매우 아픈 사람들이 많아서 표정이 밝지만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밝게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다가가려고 노력하게 돼요."

앞서가는 연구로 내일을 밝히다

질병에 대한 예방과 치료는 진료실과 수술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의 의학의 발전이 그러했듯이, 국내 · 외 수많은 의료진들이 불철주야로 연구실의 불을 밝힌 채 아직 원인 및 완전한 치료법이 규명되지 않은 질병, 그리고 현대사회에 이르러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질병들을 정복하기 위한 공부와 연구를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새로운 길을 열며, 더 나은 미래의 의학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이에 '미래의학을 선도하는 한양대학교의료원'의 마지막 주제로 지난해 한양대학교의료원 의료진들의 성과가 반영된 대표적인 연구논문에 대해 살펴보았다. 진료실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연구에 대한 의미와 이것이 실제 의료의 현장에 적용되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변화의 모습을 소개한다.







2016년 한양대학교의료원의 연구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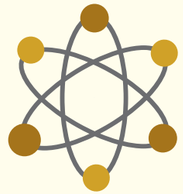
루푸스 원인 유전자 발굴로 **새로운 치료 가능성 열다**



글. **배상철** 교수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장

새로운 루푸스 유발 원인 유전자 규명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이하 루푸스)는 난치병 류마티스질환 중 가장 대표적인 자가면역 질환으로 전신을 모두 침범하여 흔히 '천의 얼굴을 가진 병'으로 알려져 있다. 발병 원인이 유전적 소인이 60%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그 유전적 소인이 많이 밝혀져 있지는 않았다. 이번 연구는 우리나라는 물론 유전적 소인이 강한 아시아인에서 새로운 루푸스 발병 원인 유전자를 발굴하고 이의 기능을 규명하여 새로운 치료 약제를 개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시작됐다.



루푸스의 발병 원인은 유전적 소인이 60%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현재까지는 그 중의 약 8~15% 정도만 밝혀져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유전적 소인이 강한 아시아인에서 새로운 원인 유전자를 발굴하고 이의 기능을 규명하여 새로운 치료 약제를 개발하는 것이다.

연구는 총 17,000여 명의 대규모 한국, 중국, 일본 루푸스 환자군과 정상군(한국인 8,700명, 중국 4,300명, 일본 4,000명)의 면역 유전자의 유전변이를 면역칩(Immunochip) 플랫폼 기술 등을 통해 20만 개의 유전자를 고밀도로 분석하고 다양한 생물학적 통계기법을 이용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면역칩을 통해 얻은 20만 개의 유전변이를 다양한 통계 및 생물정보학 분석을 통해 루푸스를 유발하는 새로운 원인 유전자 10개를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10개 유전자 : GTF2I, DEF6, IL12B, TCF7, TERT, CD226, PCNXL3, RASGRP1, SYNGR1, SIGLEC6). 또 후성유전적 특징과 유전자 발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 새롭게 규명된 유전자에 존재하는 유전변이 중 질병 발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기능성 유전변이를 규명했다. 또한 다수의 루푸스 유전자가 면역 세포인 B세포와 T세포에서 특징적으로 발현되고, 유전변이에 의해 유전자 발현이 조절되어 여러 면역 기전에 관여함을 확인했다. 더 나아가 루푸스를 유발하는 이 새로운 원인 유전자 10개의 활성에 영향을 주는 치료 약제 56개를 발견, 루푸스 치료의 맞춤형 치료제가 될 수 있음을 발견했다. 이 같은 결과는 세계적 유전학 학술지인 〈네이처 제네틱스(Nature Genetics; 인용지수=31.616)〉에 'High-density genotyping of immune-related loci identifies new SLE risk variants in individuals with Asian ancestry'라는 제목으로 2016년 1월 25일자에 실렸다.

해당 연구의 차별적 우수성 및 혁신성

류마티스질환의 치료는 예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치료약물에 대한 개인별 차이가 커서, 개인의 유전형에 따른 정밀의학(Precision medicine)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대단위의 루푸스 환자군과 정상군의 DNA시료는 최신의 DNA 분석 기법과 접목되어 큰 시너지를 만들어낸다. 이에 이번 연구는 면역질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면역 유전자의 유전변이를 초고밀도로 분석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수십 년간의 연구에서 규명된 유전자가 총 46개인 것을 고려하면, 총 10개의 루푸스를 유발하는 원인 유전자를 규명한 이번 연구는 세계적인 수준의 진보를 이룬 것이다. 또한 이 원인 유전자의 활성과 발현에 영향을 주는 물질 가운데 현재 류마티스 혹은 다른 질환의 치료제로 이미 사용되고 있는 56개의 약제를 새롭게 발견한 점도 이 논문의 차별적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발견은 유전형에 따른 정밀의학적 치료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혁신적인 치료 약제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는 의미가 있다.

과학기술적,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자가면역 류마티스질환은 환경적인 요인과 함께 다수 유전자 변이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발생된다. 이번 연구로 찾아낸 유전변이를 통해 현재 전체 루푸스 유전성의 24%까지를 규명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루푸스 발병 기전을 더 깊이 이해하고, 동시에 새로운 약제 개발에 대한 단초를 제시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연구는 한국인을 포함해 유전적으로 유사한 동아시아 인종에서 얻어낸 결과이어서 그 파급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면, 유전자 검사를 통해 조기에 질병위험군을 예측하고 개인별 유전변이에 따라 표적치료가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다. 또한 질병 예후와 약물반응에도 질병유전변이가 많은 영향을 주는데, 이것은 환자의 유전변이를 검사하고 질병 예후와 약물반응을 예측하여 적극적인 질병 치료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루푸스에 대한 연구결과 및 방법론은 다른 자가면역 류마티스질환에도 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과학기술적인 면에서의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10개의 루푸스 유발 원인 유전자를 동시에 발견한 이번 연구로 인해 루푸스 유전성의 많은 부분이 설명되었다. 이 연구는 루푸스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고, 보다 깊은 발병기작의 이해와 신규 치료제 개발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제사회적인 면에서도 '약제 리포지셔닝'을 통한 루푸스 표적치료제 개발이 가능해졌다는 파급효과를 들 수 있다. 즉 루푸스 유발 원인 유전자 10개의 활성에 영향을 주는 치료 약제 56개는 기존 루푸스 치료 약제를 포함해 다른 질환을 치료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약제들이다. 예를 들어 유전자 GTF2I는 혈액암 치료에 널리 사용되는 이마티닙(Imatinib)에 의해 유전자 활성이 조절된다. 그러므로 치료 약제를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약제 리포지셔닝 개념을 적용하면, 효과적인 약제를 신속히 개발하여 루푸스 환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약제 리포지셔닝이란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약제들의 타깃을 분석 및 이해한 후 이를 다른 질환에 활용하는 개념으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약제 개발의 전략이다. 현재 신약 개발의 상황은 90% 이상에서 실패하고 있고 더 이상 새로운 약제를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연구는 약제 개발 비용 및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즉 이미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고 기전이 밝혀져 있는 수많은 기존 약제를 컴퓨팅 기법으로 스크린하여 질환의 기전에 적절한 약제를 찾아 신속하게 임상시험을 진행하면 약제 개발 실패의 위험을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개인별 질병 원인 유전변이의 조합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별 유전변이에 따라 약제의 반응이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개인별 유전형 검사로 효율적인 약제를 처방할 수 있는 맞춤 치료도 가능한 시대가 열린 것이다.

2016년 한양대학교의료원의 연구성과

한국형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선별도구로 환자를 배려하다**



글. **김대호** 교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기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의 한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미국의 경우 전 인구의 8% 즉 13명 중에 한 명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앓게 되는 드물지 않은 정신 질환이다. 국내 역학조사에서도 4.7%의 평생 유병률과 2.1%의 현재 발생률을 보여 현재 우리나라에도 115만 명의 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13년 국민안전처 재난연감에 따르면 한 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재난 즉, 화재, 교통사고,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부상자만 36만 명이 발생했다. 이중 최소 20%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병한다고 볼 때, 매년 7만 명의 재난 관련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재난 외에도 신체폭력과 성폭행, 가족 친지의 갑작스런 죽음과 같은 다른 원인들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반 수 이상은 2년 내에 회복되지만, 일부는 회복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만성적 코스를 밟게 된다. 독일의 한 역학조사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의 회복 기간이 중앙값으로 14년이 걸린다는 결과를 보였다. 때문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조기 발견과 치료가 필수적이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조기 치료를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이다. 현재까지 가장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은 검사자가 직접 면접도구의 문답을 통해서 진단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보통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시행하기 어렵고, 또한 이 검사를 국내에서 질적으로 우수하게 수행하는 기관으로는 전문적인 의료진이 있는 본원 외에 손꼽을 정도로 적다는 것이 문제이다. 또 다른 문제는 이러한 기존의 진단방법이 환자에게 사건을 먼저 기억나게 하고, 이것에 대한 불편한 점을 물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는 감정적으로 고통스러워지게 되고, 이 상태에서는 객관적인 자기평가가 이루어지기 힘들다. 왜냐하면 너무 과도하게 응답할 수도 있고, 반대로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소평가하여 답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들은 주의집중력이 매우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복잡한 문장이나 추상적인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답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한국형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기존 검사방법의 이러한 제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건이 아닌 간단한 신체, 심리증상을 구체적으로 묻는 쉬운 내용의 항목들을 골라 만들어진 척도인 90문항의 간이정신건강검사를 사용하였다. 외국에서 개발된 이 검사는 한국어판으로 번역되어 많은 연구와 임상사용을 통해 한국인들에게 토착화된 도구로, 초등학생 정도의 학력이면 응답이 가능할 정도로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는 우울, 불안, 공포증, 강박증, 적대감, 편집증, 신체화증상, 정신병증상 등 다양한 심리증상을 알아 볼 수는 있지만 질환을 진단하는 검사는 아니다. 외국에서는 이중 28개 문항을 추출하여 20~30년 전에 범죄피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척도를 만들었지만, 아직까지 잘 쓰이지 않았다. 그 이유는 타당도 연구의 부족, 특히 범죄 피해자 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된 적이 없고 우울증 같은 다른 정신질환을 구별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진단적 타당도가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진은 이 28개 문항의 한국어판을 사용하여 100명이 넘는 다양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250명이 넘는 우울증, 적응장애, 불안장애 환자들을 비교하여 일반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에게 사용 가능하다는 점과 진단적 도구로서 우수성을 입증하였다.

이 한국형 간이정신건강검사-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척도는 작성하는데 5~7분 정도가 걸린다. 이 연구는 3년 동안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104명과 기타 진단 265명을 대상으로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심리검사 도구로서 갖추어야 할 모든 신뢰도 및 타당도 지표가 우수하였고, 특히 임상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적응장애, 우울증, 불안장애를 구별할 수 있는 준거타당도 소견을 보였다. 이는 다른 여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척도들과 구별되는 가장 훌륭한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국제저명학술지(SCI)인 〈대한의과학회지(JKMS; 인용지수=1.25)〉에 '한국형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선별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라는 제목으로 2016년 5월 호에 실렸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통해 진행됐으며, 향후 4년간 재난연구를 통해 한국형 진단도구와 치료기술이 추가적으로 개발될 전망이다.

물론 이 선별도구만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최종 진단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대상자 가운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손쉽게 선별할 수 있다면, 앞으로 임상진료나 연구에서 이 선별도구는 큰 조력자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Check!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체크리스트

본원 클리닉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심리문제의 진단과 심리치료 연구를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아 진행하고 있다.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정신적인 문제의 정확한 진단과 효과적인 심리치료를 받고자 하는 분들이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항목	0 전혀 없다	1 약간 있다	2 웬만큼 있다	3 꽤 심하다	4 아주 심하다
1. 쓸데없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	☐	☐	☐	☐
5. 몸이나 마음이 떨린다.	☐	☐	☐	☐	☐
6. 사람들이란 믿을 것이 못 된다는 생각이 든다.	☐	☐	☐	☐	☐
7. 별 이유 없이 깜짝 놀란다.	☐	☐	☐	☐	☐
8. 자신도 걷잡을 수 없이 울화가 터진다.	☐	☐	☐	☐	☐
11. 심장(가슴)이 마구 뛴다.	☐	☐	☐	☐	☐
19. 잠을 설친다.	☐	☐	☐	☐	☐
23. 낯익은 것들도 생소하거나 비현실적인 것처럼 느낀다.	☐	☐	☐	☐	☐

상기 체크리스트는 '한국형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도구 28문항 중 대표적인 8문항을 첨부한 것입니다.

문의 : 김현진 연구원(02-2292-8427)

2016년 한양대학교의료원의 연구성과

신경재생 연구로 **뇌손상 후유 장애를 최소화하다**



글. **고성호** 교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신경과

뇌졸중의 종류와 현황

뇌졸중이란 뇌기능에 있어서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이상이 급격하게 발생하여 상당 기간 이상 지속되는 병들로, 뇌혈관 장애에 의한 질병들을 말한다. 뇌졸중은 크게 뇌경색과 뇌출혈로 분류되는데,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허혈성 뇌졸중이며, 뇌출혈은 뇌혈관의 파열로 발생하는 출혈성 뇌졸중을 의미한다.

뇌경색은 또 다시 24시간 이내에 뇌졸중에 의한 증상이 사라지고 회복되는 일과성 허혈발작, 대혈관질환에 의한 뇌경색, 심장질환에 의한 심인성 뇌경색, 소혈관 질환에 의한 뇌경색 혹은 열공뇌경색 및 기타 드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뇌경색으로 분류할 수 있다. 반면, 뇌출혈은 뇌내출혈 혹은 두개내출혈, 뇌실내출혈, 거미막출혈, 경막외출혈 및 경막하출혈 등으로 분류된다.



STROKE

뇌혈관질환은 남녀 모두에서 사망률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며, 따라서 빠른 진단과 급성기의 적극적인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의 수는 많지 않으며, 대부분의 환자들 뇌에서는 다양한 과정을 거쳐 뇌세포가 죽게 되고 이로 인한 신경학적 후유증이 남게 된다.

오늘날 다양한 급성기 치료법들의 개발로 뇌졸중에 의한 사망률은 감소하고 있다. 특히 뇌출혈은 과거에 비해 고혈압 등 성인병에 대한 관리가 좋아지면서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고령인구의 증가로 뇌경색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다. 뇌경색이 발생하면 급성기에는 다양한 치료를 시도해볼 수 있으나 불행히도 이런 치료법을 적용할 수 있는 환자들의 수는 많지 않다. 따라서, 적절한 시기를 놓친 대부분의 환자들의 뇌에서는 다양한 과정을 거쳐 뇌세포가 죽게 되고 이로 인한 신경학적 후유증이 남게 된다.

뇌졸중 및 이로 인한 후유 장애 환자의 현황

2013년에 발간된 뇌졸중 진료지침에 따르면, 2013년 현재 국내 뇌졸중 유병률은 약 79만 5,000명으로 추정된다. 인구의 고령화와 더불어 뇌졸중 발생은 증가하고 있으나 치료법의 발전으로 이로 인한 사망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뇌졸중을 겪고 난 뒤 이로 인한 후유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렇게 후유 장애를 겪는 환자들이 매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치료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어 환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2011년 장애인 등록자료 및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당시 뇌병변장애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도 3조 2,75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를 기록하였다. 뇌병변장애의 상당수가 뇌졸중에 의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뇌졸중에 의한 후유 장애로 발생하는 비용 역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전세계적으로 뇌경색에 의한 신경손상을 최소화하고 이후 신경재생을 개선함으로써 후유 장애를 치료하려는 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 중이다. 많은 연구자들이 신경줄기세포를 이용한 신경재생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신경재생을 돕는 일산화탄소의 새로운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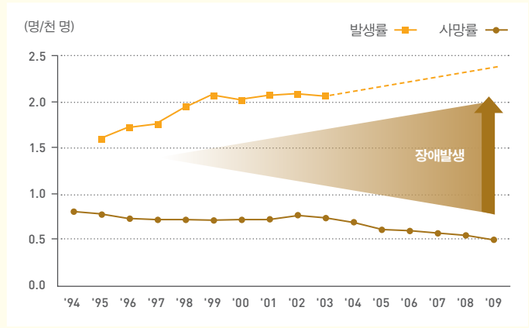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신경줄기세포 재생 능력을 이용하여 뇌졸중에 의한 신경학적 후유증을 개선하려는 연구는 본 연구팀도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다. 또한, 하버드대학 연구팀과 다년간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최근에 일산화탄소 중독의 주범으로 알려져 있는 일산화탄소가 소량일 경우 생체 내에서 신경조절인자로 작용하여 신경재생에 관여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는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 발생한 신경 손상 후 신경재생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연구 성과는 2016년 9월 26일 세계적으로 최고의 저널로 인정받는 〈네이처 메디신(Nature Medicine; 인용지수=30.357)〉에 '외상성 뇌 손상의 혈관주위세포와 신경에 일산화탄소의 이중효과'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외상, 뇌경색, 뇌출혈 등에 의해 뇌손상이 생기면 혈관주위세포들과 신경세포들이 죽어 신경학적 후유증을 야기하게 되는데, 이때 소량의 일산화탄소가 작용하게 되면 혈관주위세포의 사멸을 막고 신경줄기세포와의 신호전달을 통하여 신경세포의 재생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하여 신경학적 후유증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량의 일산화탄소를 잘 활용할 경우 외상에 의한 뇌손상, 뇌경색, 뇌출혈, 치매, 파킨슨병 등 다양한 뇌신경 손상 질환들에서 새로운 개념의 치료법을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입증하였기에 네이처 메디신에서 이 논문을 채택한 것이다.

지금까지 다양한 중추신경계질환들에 대해서는 뚜렷한 치료법이 없는 상황이고, 일단 병이 생긴 이후에는 마땅한 치료법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중추신경계질환의 치료로는 질병의 진행을 조금이라도 늦추는 것을 목표로 새로운 치료법들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다양한 질환들로 인해 손상된 뇌조직에서 신경재생을 활발하게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질병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다면 뇌경색, 뇌출혈, 치매, 파킨슨병 등 다양한 신경계질환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법을 제공하고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뇌혈관질환 사망률 및 발생률 추이



한국의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대책 중, 의협신문 2012년 8월 31일.

권역 내 의료의 '최후의 보루' 우리가 책임진다

한양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보건복지부는 작년 전국의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새롭게 선정하며 그중 서울 동남권역 유일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한양대학교병원을 선정했다. 약 1년간의 숨가쁜 정비 기간을 마치고 지난 2017년 1월 1일,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한양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출발선에 파란불이 켜졌다. 글. 박여민 사진. 김지원



권역을 위한 응급의료의 날개를 펴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결국 권역 내 응급질환자에게 최종적인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타 병원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환자들, 타 병원 응급실에서 수용할 수 없는 환자들을 모두 수용해서 치료하게 될 거예요. 우리 의료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한양대학교병원에 왔기 때문에 살았다"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을 숨 가쁘게 달려온 한양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변화는 바로 이러한 역할 수행을 효과적으로 해내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고 응급의학과 강형구 교수가 입을 열었다. 그간 기존 응급실의 리모델링에서부터 시설의 확장, 장비의 확충과 인력의 증원 등 모든 부분에서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더불어 급하게 찾아오는 응급환자를 효과적으로 분류하고, 적시에 적절한 응급처치를 진행하기 위한 시스템적인 정비 역시 함께 진행됐다.

본격적인 정비 기간이었던 지난 2016년 동안만 해도 한양대학교병원을 찾는 응급 환자는 그 전해에 비해 5% 정도 증가, 타 병원으로부터의 중증 환자 의뢰 역시 늘어 입원환자수의 비율이 약 15~18%에서 20~25%까지 높아지며 달라지는 위상에 대한 기대를 실감케 했다.

"특히 이번 리모델링을 진행하며 아예 6층 규모의 독립 건물을 지었죠. 타 병원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공간이 넓어졌고요. 이런 부분에서부터 환자분들이 느끼는 만족감이 커질 거예요. 그밖에도 시설이나 시스템적인 여러 가지 변화를 통해 환자를 돌볼 수 있는 능력치가 한 300% 이상 상승했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안정된 공간에서 신속하게 이뤄지는 최상의 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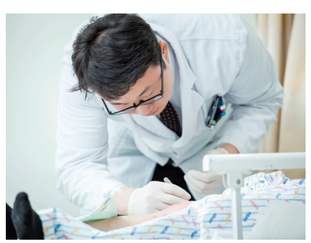
새롭게 문을 연 권역응급의료센터는 무엇보다 이곳을 찾는 응급환자들의 기다림 없는 '신속'한 대처와 불편을 최소화한 '안정'된 치료를 강조한다. 입구에서부터 지체 없는 응급 소생이 필요한 초응급환자, 전염의 우려가 있는 감염 의심환자, 그밖에 일반 응급환자로의 체계적인 분류가 이뤄진다. 넓고 쾌적해진 실내는 적절한 공간 분리와 병상 간의 여유 있는 거리 확보를 통해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번잡하고 시끄러운 응급실의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났다. 감염병 유행을 대비해 환자들을 선별 진료하고 전염을 차단할 수 있는 센터 내 음압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였으며, 보호자의 출입 역시 카드 명찰을 통해 제한하는 선진화된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향후 응급 중증환자의 수용이 늘어날 것을 대비, 총 6층으로

"앞으로 더 많은 중증 응급환자들이 이곳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결국 그들의 마지막 보루가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전체 진료과 및 병원의 합심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우리 권역, 나아가 서울시 내에서 한양대학교병원이 만들어갈 역할과 위상에 대한 병원 차원의 공통된 청사진에 권역응급의료센터가 대문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루어진 권역응급의료센터 건물 내에 중증환자관찰구역 8병상, 음압격리실 2병상, 일반격리실 4병상을 포함한 응급실 내 37병상과 응급중환자실 20병상 및 응급병동 30병상을 마련하여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환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설 면에서는 고압 산소 치료기, 인공 심폐기 등 중증환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응급 시설들이 많이 확충됐습니다. 일부 병상에는 관련 장비들을 병상의 옆 공간이 아닌 상단에 부착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펜던트 시스템을 활용했고요. 이번 리모델링과 신축을 통해 넓어진 공간 속에서 환자분들이 조용하고, 넓고, 쾌적한 분위기와 함께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응급의학과 오재훈 교수는 환자와 보호자들이 느끼는 안정감은 치료 및 이후 경과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말한다. 이에 리모델링을 완료한 센터 곳곳에는 환자들이 불안한 마음으로 응급실에서 대기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본인의 진행사항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60인치 대형 모니터 화면도 설치했다. 환자들은 이를 통해 남아있는 치료와 대략적인 대기시간, 담당 주치의까지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응급의학 전문의와 각 과 전문의가 만들어 갈 시너지

시설과 시스템적인 부분의 대대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면 필수적으로 함께 진행되는 것은 이에 따른 인력의 변화 및 확대일 것이다. 작년까지 6명이었던 응급의학과의 전문의는 올해 7명, 다가오는 5월에는 8명까지 늘어날 예정으로, 향후 총 8명의 전문의가 365일 24시간 돌아가며 근무를 서게 된다.

그밖에 간호인력의 확충은 물론 심폐소생술, 중증 환자의 응급처치 및 이송 등의 업무를 보게 될 응급구조사, 실시간으로 중앙응급의료정보망에 전송되는 막대한 자료를 관리하고 지표를 체크하는 응급의료정보망 코디네이터 등이 새롭게 충원되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꾸려가게 된다.

더불어 한양대학교병원 내부 각 진료과들 간의 협조도 빼놓을 수 없다. 응급환자들에게 있어 응급실이 진료의 시작이라면, 그 치료를 담당하는 것은 수많은 병원 내 진료과가 된다. 특히 전문의의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과 같은 긴급한 질환인 뇌혈관질환은 더욱 원활한 협조가 요청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이에 한양대학교병원은 10개의 긴급 질환별 신속진료 지침을 마련, 각 질환에 따라 최종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는 데드라인을 설정하여 그 시간 내에 응급의학과는 물론 해당 진료과의 교수들이 즉각 방문하여 환자의 상태를 살필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더 많은 중증 응급환자들이 이곳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결국 그들의 마지막 보루가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전체 진료과 및 병원의 합심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우리 권역, 나아가 서울시 내에서 한양대학교병원이 만들어갈 역할과 위상에 대한 병원 차원의 공통된 청사진에 권역응급의료센터가 대문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1월부터 시작되는 권역응급의료센터 핫라인은 24시간 상시 응급의료 전문의에게 직접 연결이 된다. 병원을 찾는 중증 응급환자가 늘어갈수록 병원은 더 바쁘고,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양대학교병원과 권역응급의료센터는 그 역할을 담당하는 데 결코 주저함이 없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연락이 오더라도 환자를 받고, 성공적인 치료를 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권역응급의료를 책임지는 병원의 첫 번째이자 궁극적인 역할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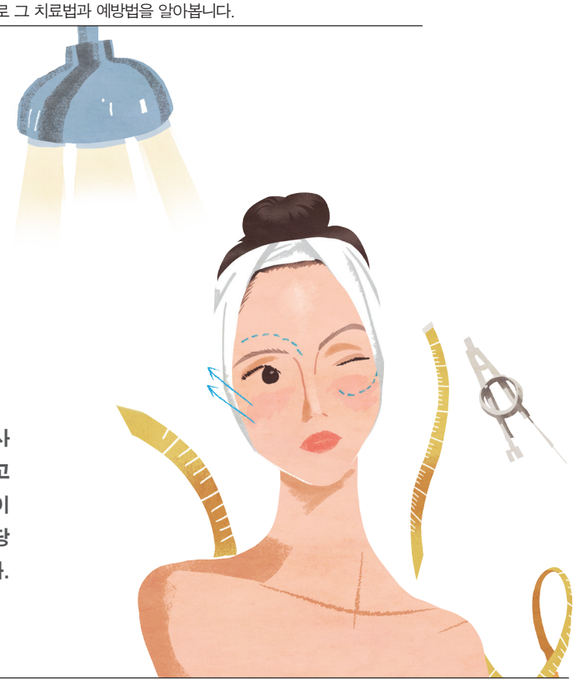
Mini Interview

중증 응급질환 환자를 위한 최적의 의료를 제공합니다



임태호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장
한양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한양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이제 모든 중증질환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적, 인적 정비를 마쳤습니다. 개원가나 구급대 등 권역 내 모든 의료의 순간에서 최후의 치료를 담당하는 보루로, 언제든지 문을 열어 환자를 수용하고 진료를 할 것입니다. 특히 권역응급의료센터 선정과 함께 재난거점병원으로도 지정되어 향후 국가적인 재난 시에 의료 지원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든 믿고 안심할 수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로 나아가도록, 앞으로도 중증 응급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미(美)의 유혹**

낯설지 않은 미디어 속 '성형'

외모가 또 하나의 경쟁력이 된 시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은 '얼짱'이 되고 싶어한다. 오늘날 더 예뻐지고, 더 잘생겨지고자 하는 욕망 속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성형도 더 이상 낯선 것이 아니다. 여전히 때로는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오늘날 당당한 자신을 가꾸는 하나의 수단으로 대중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글. 박민주

Mnet 〈프로듀스 101〉에서 다이아 멤버 정채연은 청초하고 예쁘다는 이유로 시청자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다.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에도 꾸준한 사랑을 받던 그는 MBC에브리원 〈비디오스타〉에서 어릴 적 사진을 공개하면서 성형 논란에 휩싸였다. 이외에도 브라운관에 간만에 등장한 리지는 얼굴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2NE1 박봄은 SNS에 올린 사진 속 얼굴이 부자연스럽다는 이유로 성형을 의심받았다.

연예인들의 성형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과거 연예인들이 붉어진 의혹에 대해 부정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면 오늘날 이에 대처하는 자세는 사뭇 달라졌다. FashionN 〈화장대를 부탁해〉에서 리지는 MC 이특의 짓궂은 질문에 당황하지 않고 당당하게 성형 사실을 밝혔고, 제시는 KBS 〈해피투게더〉에서 가슴 성형을 고백해 오히려 주변 연예인들을 당혹시켰다. 제시는 더 나아가 "내 돈 주고 내가 했는데", "수술 안 했다고 감추는 게 더 싫다"며 떳떳함을 드러냈다.

이제 성형은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가깝고 친숙한 것이 됐다. 지금은 종영됐지만 tvN 〈렛미인〉과 동아TV 〈도전! 신데렐라〉처럼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형 수술을 하는 프로그램도 나왔다. 프로그램의 원래 목적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부위를 의료적인 차원에서 수술하는 것이었지만 때로는 미용만을 위한, 예뻐지기 위한 성형을 감행하기도 했다. 외모에 자신이 없어 위축됐던 많은 의뢰인은 성형을 통해 콤플렉스를 없애고 자신감을 얻게 됐다. 주변의 시선도 달라졌다. 따가운 눈초리, 손가락질과 비웃는 반응 대신 찬사가 터져 나왔다. 한 남성 의뢰인은 성형 수술을 통해 1년 동안 짝사랑하던 여성과 사랑의 결실을 맺기도 했다. 분명한 것은 의뢰인들의 아름다운 얼굴만큼 당당한 외모에서 비롯되는 자신감과 밝은 미소가 그들을 더욱 빛냈다는 것이다.

국제미용성형수술협회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우리나라 미용성형시장 규모는 약 5조 원으로 국제성형시장의 25%를 차지했고, 건수로는 인구 1,000명 당 13.5명이 성형 수술을 받았다. 한국갤럽에서는 2015년 기준 30세 미만 여성 가운데 31%가 성형수술을 받았다는 통계를 냈다. 이처럼 미용성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계속되고 있다. 누구나 바라는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 자신감 있는 자신을 위한 변화와 투자를 인정하는 시대 속에서 성형은 더 이상 감출 것이 아닌 당당한 것이 되었다. 성형이 자신을 꾸미는 수단이 된 만큼 나에게 맞는 미의 기준을 생각해보고, 수술이나 시술을 통한 변화를 시도할 때에 올바른 이해와 숙지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성형시술, 간단한 것이라도 '전문의'에게 받아야

최승석 교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성형외과



성형 '수술'과 '시술'의 차이

'수술'이라는 단어는 누구에게나 큰 부담을 준다. 비용에 대한 부담감, 실패에 대한 부담감, 통증에 대한 부담감 등등. 이러한 환자의 부담감은 수술에 대한 공포를 형성하게 된다. 이때 환자의 부담감과 공포감을 덜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시술'이다. 쉽게 설명하면 '수술'은 살을 절개하고 들어가 작업하여 확실한 교정을 얻어낸다. 반면에 '시술'은 간단히 주사나 실 등을 이용하여 비교적 작은 교정을 얻어낸다. 이런 이유로 시술을 '쁘띠 수술'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현재 흔히 행해지는 쁘띠 수술에는 보톡스, 필러, 실리프팅 등이 있으며 이들은 공통적으로 적은 비용, 짧은 시술 시간 등의 장점을 갖는다.

성형시술의 종류와 장·단점

보톡스 주사 : 보톡스는 근육을 움직이는 운동 신경을 차단함으로써 안면의 주름 개선, 사각턱 교정, 종아리 퇴축 등을 유도할 수 있다. 하지만 지속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약 6개월 간격의 주기적인 시술이 필요하며, 주름이 없어지는 동시에 근육이 마비되어 표정도 어색해질 수 있는 단점이 있다.

필러 주사 : 필러는 일반적으로 얼굴의 볼륨이 부족한 곳에 채워 넣을 수 있는 충전물로서 낮은 콧대, 밋밋한 이마, 깊은 팔자 주름 등에 흔히 사용된다. 값비싼 보형물 삽입술을 대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맥 내로 주입될 경우 피부 괴사 및 실명의 위험이 있다.

실리프팅 : 얼굴의 피부 아래로 실을 걸어 짧은 시간에 간단히 팔자주름이나 늘어진 턱살을 교정하는 시술로 과거의 안면거상술을 대체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그 효과가 안면거상술에 비해서는 확실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

시술 시의 주의사항

시술은 보통 간단하며 시술 시간이 짧다. 시술하는 의사들에게도 진입 장벽이 낮아 비교적 경험이 적은 의사들도 큰 두려움 없이 시술을 행한다.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소위 말하는 '일반의'들도 너도나도 미용 시장에 뛰어들어 이러한 시술들로 환자들을 현혹한다. 하지만 안면부의 정확한 해부학적 구조물들을 인지하고 발생 가능한 합병증들을 숙지하여 조심하며 시술하는 것과, 단순히 간단하다는 이유만으로 시술을 쉽게 생각하며 행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쁘띠 수술은 공통적으로 절개를 가하지 않기 때문에 얼굴 내부를 들여다보지 못한 채 겉에서만 행해지는 시술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주요 동맥이나 신경 같은 얼굴 내부의 구조물들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 안전하고 정확한 시술이 가능하다. 범람하는 미용 시장에서 현명한 구매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무리 싸고 간단한 시술일지라도 시술하는 의사의 자격과 숙련도를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규모보다 내실로 지역의 '눈'을 사로잡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협력병원 구리성모안과

구리성모안과는 지역 주민들에 의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커진 병원이다. 인근에서 비할 바 없는 규모와 실력을 갖췄음에도 구리 · 남양주 지역에 '제일 큰 안과병원'이라는 타이틀보다 가장 내실있고 기본을 지키는 병원으로 기억되길 바란다며, 늘 환자와 지역 사회를 위해 눈을 돌리고 있다. 글. 박여민 사진. 이승헌

지역주민의 사랑으로 크는 병원

1990년 개원한 구리성모안과는 구리 지역에서 가장 먼저 백내장 수술을 시작한 개인병원이자, 현재 5명의 전문의와 대학병원 급 시설을 갖춘 지역 내 가장 큰 안과이기도 하다. 27년 전의 시작은 전윤수 원장 혼자서 진료를 보는 작은 개인병원이었지만, 입소문을 타고 찾아오는 환자가 늘어나면서 점차 그 규모가 커졌다.

"처음부터 작더라도 수술이 가능한 개인병원을 열자는 목표가 있었어요.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이 개원하기 전까지 이 지역에서 백내장 수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병원이었죠. 규모가 이만큼 커지게 된 것은 환자분들이 꾸준히 찾아주시면서 일어난 자연스러운 변화라 그저 감사할 따름이죠."

현재 구리성모안과에서 진행하는 백내장 수술은 1년 평균 약 1,600건, 환자는 인근 구리 지역을 넘어 남양주와 서울 동북부로까지 확대됐다. 그 사이 백내장을 비롯한 각막 질환 외에도 망막과 사시, 안성형, 녹내장 등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진이 확충되었고, 그에 따라 시설 역시 업그레이드 되었다.

규모 및 시설의 강점과 구리역에서 가깝다는 접근성 외에도, 환자들이 구리성모안과를 찾는 이유로 전윤수 원장은 '한결같음'을 꼽았다. 환자의 걱정을 키우는 과한 진료나 무리한 수술 없이 필요한 이야기만 해주고, 환자의 편의를 먼저 배려하는 것. 커져가는 규모나 명성에 휩쓸리지 않고 작은 질환으로 온 환자까지 늘 같은 자세로 대하고 진료하니 환자들은 본인의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도 구리성모안과로 그들을 데려오기 시작했다.

이러한 지역 주민들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구리성모안과는 2002년부터 구리 · 남양주 지역에 있는 25개 고등학교에 장학금을 전달하는 장학사업도 매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병원 내의 간호원, 직원들이 대부분 이 지역 출신인 만큼 장학사업의 효과는 대외적으로는 물론, 병원 내의 분위기 형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스스로 일한 결과가 후배들에게 도움으로 되돌아가니 병원에는 더 생기가 돌았고, 환자들은 자신이 찾는 병원이 자신의 아들이나 딸, 이웃 주민들을 위한 일을 한다는 생각에 더 애정을 가지게 됐다.

환자를 보는 이심전심으로 키워가는 신뢰

구리성모안과와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이의 거리는 걸어서 불과 10분 남짓. 이러한 거리상의 이점 등으로 구리성모안과는 1995년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의 개원과 동시에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됐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에는 무엇보다 개인병원의 입장을 잘 이해해 주시는 의료진들이 많아요. 환자들의 눈높이에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말 한마디도 신경 써서 해주시고요. 대학병원을 꺼리다 뒤늦게야 가게 된 환자들도 많은데, 그분들께 왜 이제야 왔느냐고 다그치기보단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지 먼저 헤아려주시죠."

환자를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통하는 이심전심은 진료 외의 의료 및 학술적인 부분에서의 교류로도 자연스레 확장됐다. 구리성모병원은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안과에서 1년에 2번씩 진행하는 세미나에 늘 빠지지 않고 전 의료진이 함께 참석한다. 직접 만나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며 깊어가는 서로에 대한 이해는 또 다시 환자에 대한 고민과 배려에 대한 이야기로 깊어져, 언제 어느 때든 전원 환자가 걱정이 되거나 궁금하면 편하게 물어보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사이가 됐다.

"전신마취가 필요한 수술, 안구가 찢어지는 등의 사고를 당한 응급환자 등, 다루기 까다로운 질환의 환자들도 한양대학교구리병원에서는 언제나 망설임 없이 받아줘요. 또 예후가 걱정되는 어떤 상태에서도 늘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시니 당연히 믿고 맡길 수 있죠."

아주 가까운 거리에 늘 믿고 맡길 수 있는 협력병원이 있다는 것. 이것은 환자들의 만족과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구리성모안과가 내세우는 또 하나의 경쟁력이 된다. 오늘날 구리 · 남양주 지역의 가장 큰 개인 안과병원이 되었지만 애초부터 '규모의 병원'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전윤수 원장은 필요한 것은 오직 '내실'을 더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환자의 결과를 더 좋게 만드는 것, 병원에서 치료를 잘 하는 것만한 내실과 만족이 어디 있겠냐고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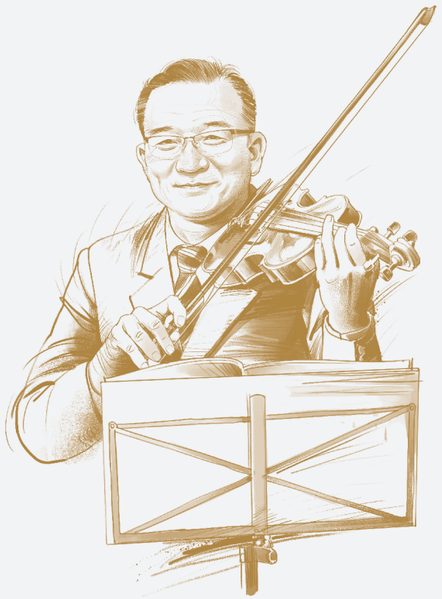


구리성모안과
- 주소 :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239 리맥스빌딩 5층
- 문의 : 031-554-7575

가난한 젊은 서민 예술가들의 삶과 사랑

푸치니 오페라 〈라 보엠〉

Giacomo Puccini <La Boheme>



푸치니의 대표적인 오페라 〈라 보엠〉의 원작은 파리출신 작가 앙리 뮈르제의 소설 「보엠 인생의 장면들」이다. 이 소설은 1845년부터 3년 동안 잡지 「해적」에 연재되었는데 그 내용은 그가 이듬해 〈보엠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5막 연극을 만들고 소설로 엮을 만큼 대단한 인기를 얻고 있었다. 뮈르제 자신이 젊어서 매우 가난하여 작곡가 마스카니와 함께 하숙을 하며 끼니를 거르는 생활을 맛보았다는 이야기에 푸치니는 그에게 많은 호감을 가졌다. 이 소설을 바탕으로 대본 작가 일리카는 대사를 썼고 시인 쟈코사가 시를 넣어 푸치니가 곡을 붙인 후 오페라로 완성했다. 작곡가 자신도 밀라노 음악학교를 나온 후 가난하게 지내며 보헤미안적인 생활을 체험하였기에 더욱 실감나게 오페라가 완성될 수 있었다.

산업혁명이 한창 진행되던 18세기 말. 열차와 증기선이 발달하고, 한편에서는 '공산당 선언'이 발표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프랑스 혁명의 열기가 식어가면서 다시 계급사회가 시작하는 듯 서민들은 공장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에 반발하여 나타난 젊은이들의 유형이 보엠(보헤미안)들이다. 이들은 이상은 높지만 실제 사회에서는 별로 야심이 없고 예술과 가난을 멋으로 아는 젊은이들이었다. 이들이 실제 사회에 기여하는 바는 별로 없었으나, 당시 부르주아 사회에 대한 반작용으로 보엠의 예술성보다는 생활태도에 대한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당시 프롤레타리아들은 보엠들을 부르주아 사회에 대한 반발의 산물로 '인간쓰레기'라고 공격하였다. 보엠들은 예술가의 전형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세기말 사회의 관습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생활을 하는 서민 예술가의 대명사로 불려졌다.

이 오페라에서는 다락방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네 사람의 보엠을 그리고 있다. 그 중 시인 로돌포는 다락방 이웃으로 병약한 처녀 미미와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으나 가난 때문에 서로 헤어지게 되고 미미는 병들어 죽게 된다. 한편 화가 마르첼로와 거리의 여인 뮤젯타와의 현실적인 사랑을 중심으로 네 사람의 사랑과 우정을 절묘하게 그리고 있다.

제1막 1830년경 크리스마스 이브 파리 라틴 골목의 낡은 하숙방. 가난하지만 젊은 네 명의 보엠들이 등장한다. 화가 마르첼로는 '홍해의 길'이라는 그림을 그리고, 시인 로돌포는 자기가 쓴 소설 원고를 화로에 넣어 불을 지피고 있다. 철학자 꼴리네는 책을 저당 잡히러 갔다가 허탕을 치고 와 있다. 어디선가 수입이 생긴 음악가 쇼나르가 아이들에게 장작, 술, 음식 등을 들려서 유쾌하게 방에 들어오자 방안 분위기는 금세 밝아지고 쇼나르는 밖에 나가 식사를 하자고 제안한다. 집세를 재촉하며 들어오는 집주인 베노아에겐 술을 먹여 대충 둘러대며 내쫓는다. 이들은 카페 모무스로 향하고 시인 로돌포는 남은 원고를 정리하고 뒤따르기로 한다. 이때 꺼진 양초의 불을 얻으러 병약해 보이는 이웃집 처녀 미미가 문을 두드린다. 로돌포가 불을 붙였으나 바람에 다시 꺼진 듯 일부러 꺼트린다. 어둠 속에서 방버닥에 떨어뜨린 열쇠를 더듬어 찾는 두 손이 마주치자 여인의 손을 잡은 로돌포가 아리아 '그대의 찬 손'을 부르며 자신은 가난한 작가라며 인사를 하고, 여인은 '나의 이름은 미미'를 부르며 자신은 바느질로 생활하는 처녀라고 인사를 한다. 집밖에서 들리는 친구들의 재촉하는 소리를 듣고 같이 동참하기로 하며 사랑의 이중창 '오 사랑스런 아가씨'를 부르며 카페로 향한다.

제2막 소란스런 카페 모무스 앞 거리 세 친구 앞에 로돌포는 미미와 함께 나타난다. 서로를 소개하고 음식을 주문한다. 이때 화가 마르첼로의 애인 뮤젯타가 한 늙은 부자와 함께 나타난다. 마르첼로가 있는 것을 본 뮤젯타는 자기를 알리기 위해 거칠게 영감을 다루는데 마르첼로가 모른 척하자 이에 분개한 뮤젯타는 난동을 부린 후 '뮤젯타의 왈츠'를 부르며 마르첼로의 눈길을 끈다. 그녀는 발이 아프다며 영감에게 새 신을 사오게 하고는 그 사이에 마르첼로에게 달려가 포옹을 한다. 그들은 카페 청구서를 가지고 온 웨이터에게 영감이 계산할 것이라며 카페를 나간다. 돌아온 영감은 비싼 카페청구서를 보고 어이없어 주저앉는다.

제3막 파리 세관 옆 2개월 후 겨울 새벽. 성문 근처 뮤젯타와 마르첼로가 함께 운영하는 주막에 찾아온 미미는 로돌포가 변심했다고 하소연한다. 주막에 이미 와 있던 로돌포는 미미가 없는 줄 알고 마르첼로에게 "그녀의 병이 심각하여 나 같은 가난한 시인과는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라고 한탄한다. 이때 숨어서 이야기를 듣던 미미의 흐느끼는 소리에 놀란 로돌포에게 미미는 '이제는 돌아가렵니다. 옛집으로…'를 부르고, 옆에선 마르첼로와 뮤젯타가 서로 다투면서 '이별의 사중창'을 부르며 막이 내린다.

제4막 하숙집 다락방 옛 친구들이 그전 생활로 다시 돌아와 있다. 로돌포와 마르첼로는 옛 애인을 그리며 이중창 '이제 미미는 돌아오지 않고'를 부른다. 이때 뮤젯타가 황급히 뛰어들며 미미가 중병을 앓고 아래층에 왔다고 하자 로돌포가 놀라 내려가 미미를 부축하고 침대에 눕힌다. 뮤젯타는 미미가 로돌포의 품에 안겨 눈을 감기 위해 왔다며 자신의 귀걸이를 저당 잡힌 돈으로 의사를 불렀다고 전한다. 철학자 꼴리네는 자신의 외투도 저당 잡힌다면서 '외투의 노래'를 부른 후 전당포로 향한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미미의 고통은 더 심해지고 로돌포 품에서 서서히 죽어간다. 로돌포는 애처롭게 "미미"를 외치고 숙연한 분위기에서 막이 내린다.

글. **오재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오 교수는 미국 존스홉킨스 앙상블과 스탠포드 팔로 알토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서 제1바이올린으로 활약한 바 있다. 이러한 고전음악에 대한 사랑을 환자를 비롯한 더 많은 이들과 나누기 위해 (필하모니아의 사계)라는 클래식 안내서를 출간하기도 했다.

들을만한 Album



베를린 도이치 오페라와 합창단(Decca, 1972)

지휘 :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루치아노 파바로티(로돌포),
미렐라 프레니(미미)



로마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 관현악단과 합창단(Decca, 1959)

지휘 : 툴리오 세라핀
카를로 베르곤지(로돌포),
레나타 테발디(미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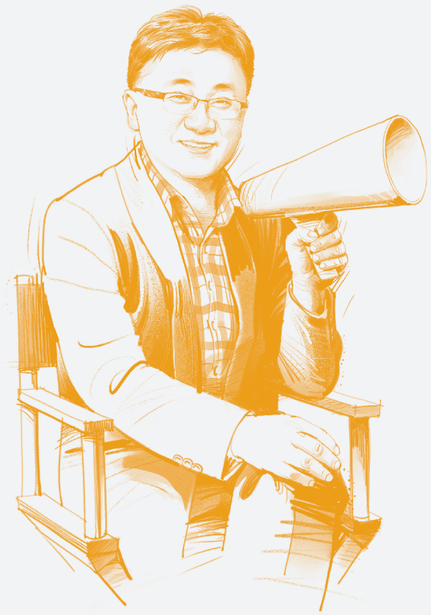


RCA 빅터 관현악단과 합창단(EMI, 1956)

지휘 : 토마스 비첨(지휘)
유시 비욜링(로돌포),
빅토리아 로스앙헬레스(미미)

혼용무도(昏庸無道)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작은 바람

현실의 절망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저는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제가 아닌 아랫사람들이 마음대로 한 일입니다. 하지만 인적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제 잘못도 있으니 참모진을 해임하겠습니다", "나는 사기꾼이 아닙니다(I'm not a crook)". 어딘가 낯익지 않은가?

40여 년 전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 다만 닉슨과의 차이점은 우리의 VIP는 대다수 사춘기 학생들도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준의 사머니즘에 20대부터 경도되어 겸양지덕(謙讓之德)을 발휘, siri에 이어 스스로 서열 2위로 내려앉을 만큼 사심없이 순수한 반면 무쇠로 만든 귀를 가졌으며 혼밥을 즐기는 자폐 성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2012년 맹세한 대한민국과의 혼전 서약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필수적인 소통과 공감이라는 소양의 부족 탓에 깨어지기 일보 직전이다.

이토록 화가 나는 이유는 우리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일들을 벌인 주체가 말도 안되게 시시한 쓰레기였다는 거다. 마치 연인관계가 끝났는데 나를 대신할 상대방 남자가 도저히 내가 납득이 되지 않을 정도의 시시한 수준인 것처럼. 또 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휴일 명절 밤낮없이 응급수술을 마다 않는 우리 같은 사람도 있는데 300여 명의 어린 학생들을 포함한 아까운 생명이 스러져간 그 중요한 7시간 동안 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관저에서 버틴 건지. 모르쇠와 억울함으로 일관된 대국민 담화와 측근들의 거짓말은 덤이다.

혐오와 포기의 시대에 접어든지 오래되었지만 그래도 나아질 거라고 믿는 이유는 각자가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는 정당한 시스템이 정착되고, 이 사회를 지탱해 나가는 중심축은 좌우의 원심력과 구심력을 함께 아울러 정도를 벗어나지 않고 건전한 방향으로 수렴될 것이라는 희망 때문이다. 지금 시대를 아우르는 사자성어는 혼용무도(昏庸無道, 무능하고 어리석은 군주에 의해 세상이 어지러워져 도리가 제대로 행해지지 않음을 의미)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족족 수사를 받으니 퇴임 후의 공과를 단죄받는 것이 당연지사처럼 되어버렸지만, 언젠가는 제대로 일 좀 할 거라고 기대하는 재임 시점에서 이런 막장드라마가 펼쳐지다니. 아마 그 분은 대한민국과 결혼은 하되 후세를 가질 생각은 하지 않으신 모양이다. 그러니 다음 세대에 대한 배려가 일절 없을 수 밖에.

정권 말기에 들어서면 필연적으로 사회비판 영화가 등장하곤 한다. 이 모든 시금석은 작고한 김영삼 대통령 재임 기간인 문민정부 때 시사코미디 분야에서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화려한 휴가(2007)**는 논란은 있지만 현재도 청산되지 않은 군부독재 시대의 아픈 자화상에 대한 나름의 성찰이었다. 지금의 촛불시위의 효시가 된 1987년 6월의 6.10 국민항쟁을 촉발시킨 5.18 민주화운동을 최초로 다룬 극영화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나 아렌트의 '전체주의 사회 하의 사회적 악(惡)'이란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에서 항변한 아이히만의 말처럼 상부의 지시에 따랐을 뿐 그 당시 체제에서 개개인의 도덕적 성찰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악의 진부성'이란 개념을 준용한다면 가해자와 피해자는 군인과 광주시민이 아닌 군부독재 집단과 그 나머지의 다수로 구분되어야 한다. 역사는 단순한 사실의 기록을 넘어선 냉정한 평가가 뒤따라야 하므로 잘못된 과거사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이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미화하고 각색한다면 국정농단보다 더 심한 죄를 범하는 것이다.

2012년도에는 **광해, 왕이 된 남자(2012)**, **범죄와의 전쟁(2012)**, **26년(2012)**, **부러진 화살(2012)**, **남영동 1985(2012)** 등의 사회고발 영화가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실화나 실존 인물을 기초로 한 팩션, 개연성 있는 웹툰을 소재로 한 영화들은 '사실은 이랬지만 이런 식으로 고치면 좀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혹은 '그래도 그때보다는 현재가 더 나은 세상이 되었어'라는 다르지만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 영화는 각각 '군주가 민심을 제대로 읽었더라면 왜란 이후에 안 그래도 핍박 받던 백성들을 좀 더 가엽게 보살피지 않았을까', '잘못된 정경유착은 일개 검사의 힘으로 바로잡히지는 않으며 그 또한 시스템의 한 구성원이 되어간다', '양민학살을 지시하고도 잘 살고 있는 희대의 살인자를 법을 어겨가며 몸소 처단해야만 하는 고독한 범법자들', '판사를 석궁으로 위협한 범죄자에 대하여 뚤뚤 뭉친 사법부에 대해 슈퍼 을의 입장에서 외로이 자신을 변호하는 한 남자의 분노', '22일간의 악몽 같은 고문을 당하면서 '무릎 꿇고 살기 보다는 서서 죽길 원하노라'를 되뇌고 그 후 20년이 지나 교도소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 속칭 장의사라 불리우는 고문기술자를 만나는 순간 '과연 저 자를 용서할 수 있을까'라는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던진 김종(근)태의 회한'에 대해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진다.

올해 말과 내년 초에 개봉을 준비하는 영화들 중에서 원전 재난영화의 외피를 두른 **판도라(2016)**의 실제 촬영은 작년 여름에 마쳤는데 후반작업으로 1년 이상 개봉이 늦춰졌다는 감독의 변은 영 옹색하다. 오히려 정권이 레임 덕에 빠져 힘 빠지길 기다린 것이란 소문이 파다하다. 희대의 사기꾼 악당 역할을 맡게 된 이병헌과 대적하는 경찰 지능범죄수사팀장 강동원이 등장하는 **마스터(2016)**, 온 나라를 뒤흔들 정치검사 정우성, 조인성이 출연하는 **더 킹(개봉예정)**, 국정원 선거 댓글 알바 사건이 등장하고 북한 주요 인사가 살인사건 용의자로 쫓기는 **V.I.P.(개봉예정)**, 부패정치 연기로 정평이 난 최민식이 서울시장 3선에 도전하는 **특별시민(개봉예정)** 등의 영화는 이미 사회적 갑을 관계를 비틀거나 투철한 직업적 사명감, 혹은 무저갱의 지옥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는 신의를 저버린 악인들을 다룬 **베테랑(2015)**, **아수라(2016)**로 우리 사회의 어두운 치부를 들추는 일에 면역이 된 관객들에게 좀 더 세고 강력한 한 방을 날릴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이기 이전에 사생활이 있는 여자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애끓는 부모의 입장은 생각하지도 않고 맹목적으로 대통령을 변호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기에 거부감이 드는 건 사실이다. 장진 감독의 판타스틱 코미디(?) **굿모닝 프레지던트(2009)**에 나온 건국 이래 한번도 보지 못했던 비현실적인 세 명의 대통령들을 다시 보면서 드는 단상은 이렇다. '임기 말년 244억 로또에 당첨되었지만 자신이 공언한 대로 사회에 환원하며 거짓말을 하지 않는 대통령', '일개 국민의 요청대로 자신의 신장을 공여해주며(바라지도 않는다) 굴욕의 정치는 하지 않겠다고 위기의 순간 단호하게 대처하는 대통령', '남편 때문에 곤경에 처했지만 혼밥을 배척하고 대화를 하며 결국 배우자의 저녁이 있는 삶을 존중해주는 여자 대통령'. 그 분이 최소한 이 중의 하나라도 가지기를 바란다면, 나도 역시 물정도 모르고 '순수의 시대'에 머물러 버린 시대의 낙오자가 되는 건가?

글. **이형중** 한양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교수
이 교수는 기자를 꿈꾸었던 학창시절의 재능과 영화에 대한 사랑을 살려 '영화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내고 있다. 그의 글이 쉽지만 깊이 있는 까닭은 흥행 영화부터 예술 영화까지 다양한 장르를 섭렵하고, 틈틈이 영화 전문서적을 읽어온 내공 덕분이다.

볼만한 Movie



화려한 휴가(2007)
감독 : 김지훈
출연 : 김상경, 안성기



굿모닝 프레지던트(2009)
감독 : 장진
출연 : 이순재, 장동건, 고두심



남영동 1985(2012)
감독 : 정지영
출연 : 박원상, 이경영

고통 속에서 찾은 행복 독감으로 잃다

에곤 쉴레 | 스페인 독감 & 감염내과



글. 김지은 교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감염내과

오스트리아의 화가인 에곤 쉴레(Egon schiele, 1890~1918)는 클림트의 표현주의적인 스타일을 발전시켜 공포와 불안에 떠는 인간의 육체를 묘사했다. 성적인 욕망을 직접적으로 그려낸 작품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으나, 그의 작품 속에 담긴 죽음에 대한 공포와 관능적 욕망, 인간의 실존을 둘러싼 고통은 당대를 넘어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검은 질그릇이 있는 자화상, 1911


죽음과 소녀, 1915

인간의 고독과 단절을 그리다

에곤 쉴레는 1890년 오스트리아 빈 근교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예술적 재능을 보이던 그는 구스타프 클림프의 우아한 장식적 요소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인간의 격렬한 감정을 표출하는 방향으로 그만의 독창적인 화풍을 발전시켜 나갔다.

쉴레의 아버지는 그가 15살에 매독으로 사망했다. 이런 가정환경은 그의 작품에도 영향을 미쳐 일찍부터 여성의 누드화를 비롯, 성과 죽음에 대한 적나라하고도 솔직한 묘사로 세간의 논란이 되기도 했다. 쉴레의 작품 전반에 흐르는 정서는 인간의 고독과 단절에서 오는 고통의 감정으로, 인간의 실존을 둘러싼 고통스러운 투쟁에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1차 세계대전 등의 사건을 겪으며 그의 그림은 더 커지고 세밀해졌다. 에곤 쉴레의 작품 중 행복과 희망이 드러나는 작품도 있는데, 이것은 그가 결혼을 하고 안정을 찾을 때쯤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그의 나이 스물 여덟, 결혼생활 3년 만인 1918년에 쉴레의 아내 에디트는 당시 유럽을 휩쓸던 스페인 독감에 걸려 사망하고, 아내와 뱃속의 아기를 잃고 슬퍼하던 그도 곧 같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인류를 위협하는 바이러스

1918년의 유행성 독감이었던 일명 스페인 독감은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감염병으로 1918년에 발생하여 1919년까지 총 세 차례의 유행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5,00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같은 시기에 진행된 무오년 독감에 대해 당시 인구의 38%인 758만 8,400명이 감염, 14만 518명이 사망하여 환자 대비 사망률이 0.8%이었다는 기록이 있다.

독감 바이러스는 여러 야생동물이 병원보유체로 유전자의 변이와 재조합을 통해 항원 변동성이 발생한다. 1918년 당시에는 지식과 기술력이 부족하여 확인할 수 없었으나 비교적 최근에 H1N1 아형의 A형 독감이었음이 확인되었다. 이 바이러스의 근원은 조류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1917년부터 2006년 사이에 분리된 독감 바이러스와는 유전학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조류로부터 기인되었다고 확인하지는 못했다.

대개 독감에 의한 사망 양상은 연령분포로 보았을 때 영유아와 노인층에서 많은 U자 형태를 보이는 반면, 1918년 독감의 경우 영유아와 노인층뿐만 아니라 30대의 젊은층에서 사망률이 높은 W자 형태를 보였던 것이 큰 특징이다. 1918년 독감이 왜 이렇게까지 치사율이 높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특히 독감에 취약하다고 알려진 노인층보다 젊은층에서 사망률이 높은 양상을 보였던 이유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여러 추정을 해보자면 1830년, 1847년, 1889년에도 독감이 있었으나 당시는 H3 독감으로 1918년의 H1N1과 다른 아형의 독감이어서 처음 이 독감을 겪은 젊은 사람들이 면역력이 없어 큰 유행 및 사망으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가설이 있다. 또한 사이토카인 폭풍으로 인해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을 유발하여 사망률이 높아졌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은 약 10~15%의 사망환자에서 확인되었으나, 사망의 가장 큰 이유는 독감 후 발생한 세균성 폐렴이었다. 독감 후 폐렴 발생이 발생할 수 있는데 1918년 독감의 경우 심한 기관지 폐의 조직 손상과 중증의 이차적 세균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사망률을 높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1918년 독감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현대의학이 발달하지 못한 시기여서 항바이러스제나 중증으로 진행 시의 기계호흡과 대증치료, 이차 감염 시의 항생제 등의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가 없었다. 최근에는 독감 백신을 통해 3~4가지 아형의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을 획득할 수 있으며, 독감 발생률과 그로 인한 사망률이 높은 연령층에는 미리 예방접종을 시행함으로써 질병부담과 사망률은 더욱 낮아졌다. 그러나 앞으로도 새로운 아형의 독감 바이러스가 출현한다면 과거와 같은 대규모 유행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09년 독감이 그러했고, 새로이 확인, 발견되는 조류독감의 인체 감염(최근 중국에서 H5N6의 인체 감염 보고)의 경우도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늘 대규모 유행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국가적으로 새로운 아형의 독감 바이러스 출현에 대해 감시, 조사를 하고 특히 겨울철 철새에 의한 조류독감 양상을 모니터링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베어 앙, 1914


노이렝바흐에 있는 실레의 거실, 1911

“비만이라는 질병, 이제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태경 외과 교수님께 보내는 편지



작년 4월, 한양대학교병원에 특별한 손님이 방문했다. 초고도비만으로 마음껏 걷는 것조차 쉽지 않았던 카자흐스탄의 사파르쿨 살리모바 · 카시예트 살리모바 모녀. 더 나은 생활에 대한 의지로 한양대학교병원을 찾아 위 절제 수술을 받은 이들이 꾸준한 체중 감량과 함께 새로운 삶을 선물 받았다며 하태경 외과 교수에게 감사의 편지를 전했다. 정리. 박여민 사진. 송윤미



새 삶을 찾아준 하태경 교수님께

안녕하세요, 교수님.
7개월 전 어머니와 함께 이곳, 한국의 한양대학교병원에 와서 교수님께 위 절제술을 받은 카시예트 살리모바입니다. 엄마와 저는 모두 초고도비만으로, 식이요법을 통한 조절이나 모국인 카자흐스탄의 의료를 통해서는 체중 감량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미 한국의 뛰어난 의료시설과 의료진의 명성을 들어 알고 있던 와중에 저보다 앞서 이곳에서 같은 수술을 받았던 지인의 권유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되었습니다. 낯선 나라에 가서 큰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꽤 두려운 일이었지만, 당시 생활에서 느끼던 불편함과 자꾸만 위축되는 스스로를 극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지난 4월 하태경 교수님께 수술을 받은 후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선물 받았습니다. 몸무게는 지금까지도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예전보다 더 많은 곳을 돌아다니며 보다 활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도 눈에 띄게 좋아지고 달라지는 제 모습에 놀라곤 합니다. 숨쉬는 것도 힘들어 했던 어머니도 이제는 걷고 움직이며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더 감사드리는 것은, 물리적인 거리의 차이로 인해 자주 만날 수 없음에도 수술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문제까지 꼼꼼히 신경 써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체중이 줄어들면서 발생할 수 있는 영양소의 불균형 문제까지 친절한 설명과 함께 필요한 처방을 해주시는 덕분에 저는 계속해서 체중감량 과정을 즐길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이번에 챙겨주신 비타민과 철분도 꾸준히 챙겨 먹으며 다음 번에 다시 방문할 때는 더욱 날씬하고 더욱 건강해진 몸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을 바꿔주신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카시예트 살리모바 드림



카시예트 살리모바 님께

7개월만에 뵙습니다. 무엇보다 밝은 표정과 한결 가벼워진 모습이 반갑고 기쁜 마음입니다. 검사 결과 빈혈도 괜찮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안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체중감량도 하루 0.5kg에서 1kg 정도의 평균적인 수치로 꾸준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자분께서 의지를 가지고 생활해주신 덕분에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비만을 질병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만으로 인해 일상 생활에서 지장을 받는 정도인 고도비만 이상의 환자들이라면 혼자서 체중감량을 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신체 활동이 쉽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관절 등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혼자서 하는 식이요법은 요요현상으로 인해 오히려 체중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카시예트 살리모바 님께서 받으신 ‘복강경 위소매 절제술’은 위 절제를 통해 몸 속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에도 변화를 준 것으로, 이후 자연스런 식이조절을 통해 체중을 줄여나가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루 동안 음식의 섭취는 1,000kcal 가량만 되도 만족감을 느끼시겠지만, 줄어든 섭취량으로 인한 불편은 느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활동을 하시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에너지는 이미 몸 속에 축적해둔 지방이 분해되며 발생하게 되므로 갈수록 몸무게는 빠지고 생활은 더욱 가뿐해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본인보다 조금 더 심각한 상태로 수술 후에도 한동안 안정기를 가지셔야 했던 어머니께서도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말에 안심입니다. 다음 번 방문으로 예정된 4월에는 더 건강하고 좋아진 모습으로 두 분을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태경 드림

콩팥이식 환우를 위한 건강강좌



이창화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신장내과

콩팥이식 전 검사

콩팥이식(신장이식)은 말기 신부전 환자의 치료(신대체요법) 중에서 가장 좋은 치료방법이다. 성공적인 콩팥이식은 투석치료와 비교하여 대부분의 환자에서 사망 위험을 감소시키고 훨씬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게 한다. 하지만 콩팥이식 대기자의 급속한 증가와 반대로 콩팥공여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공여자 부족 해결 방법의 발전으로 최근에는 혈액형불일치 공여자도 많은 경우에 콩팥이식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식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던 노령자도 콩팥 공여뿐만 아니라 이식도 드물지 않게 시행하게 됐다.

Point.1
콩팥이식을 위해선 사전 검사가 필수다.



콩팥이식 전에는 공여자(콩팥을 주는 사람)와 수여자(콩팥이식을 받는 사람)의 사전 검사가 필요하다. 공여자는 주로 공여 후에도 남은 여생 동안 콩팥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잘 지낼 수 있는지, 혹시나 콩팥을 공여하면서 수여자에게 옮겨갈 병이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를 한다. 수여자는 콩팥이식 후 거부반응을 막기 위해 사용되는 면역억제제가 다른 감염이나 특정 질병을 악화시킬 일은 없는지 확인하고, 콩팥이식 과정을 잘 견딜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도 하게 된다. 또한 콩팥이식 후 거부반응의 위험에 대한 확인과 더불어 거부반응의 위험이 큰 경우에는 이식 전에 사전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콩팥이식 후 관리

콩팥이식 후 초기 6개월 동안은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수술 직후에는 1주에 한 번씩 내원하다가 점점 기간을 늘려서 6개월 경에는 보통 1달에 한 번 병원에 오고, 나중에는 3개월에 한 번 정도 병원을 방문하게 된다.



Point.2
콩팥이식 수술 후에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식 후에는 이식 받은 콩팥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면역억제제를 복용하여야 한다. 만약 복용하지 않으면 이식 받은 환자의 면역기능이 이식된 콩팥을 공격하여 파괴하게 되는데, 이것이 거부반응이다. 그러므로 꾸준하게 정기검진을 받고 필요한 약을 잘 복용하여야 이식 후에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

- 본 원고는 한양대학교병원이 이식 환우를 위해 진행한 건강강좌의 일환으로 2016년 12월 진행된 강좌의 내용입니다.
- 한양대학교의료원은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다양한 건강강좌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 건강강좌 소식은 46페이지 한양캘린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ANYANG NEWS

2016년 10월 ~ 2016년 12월

한양대학교병원

발달장애 아동 의료비지원을 위한 협약식 개최



본원은 지난 11월 2일 동관 8층 제1회의실에서 ㈜컴퍼니케이파트너스와 발달장애 아동들을 돕기 위한 '의료비지원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컴퍼니케이파트너스는 본원의 발달장애 아동의 의료비를 5년간 지원하고, 본원은 한양발달의학센터 내 저소득층 등 어려운 환경에 놓인 발달장애 아동을 선정해 사용하기로 했다.

핑크한양 간담회 및 메이크업 행사 개최



본원 유방암클리닉은 지난 11월 10일 신관 6층 세미나실에서 '핑크한양' 간담회 및 메이크업 행사를 개최했다. 2부로 진행된 이날 행사의 1부에서는 아모레퍼시픽 주최로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라는 주제의 메이크업 강좌를 진행했고, 2부에서는 '핑크한양'의 간담회를 실시했다.

한양대학교병원, 고용노동부 장관상 수상



본원은 지난 11월 18일 한국화재보험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2016년 감정노동 우수사례 발표대회 및 힐링 프로그램 체험존' 행사에서 전직원에게 감정노동과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교육과 함께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중간관리자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을 하고, 감정노동 휴가를 신설하여 적용한 점을 높게 평가받아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암센터 심포지엄 개최



본원은 지난 11월 19일 의과대학 본관 6층 TBL실에서 '2016 제3회 암센터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태경 암센터 소장은 "본 암센터는 다학제 협력 진료로 암 치료의 질적 향상과 환자의 만족도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면서 "이번 심포지엄이 저명한 연사들의 강좌와 함께 최신의 견해에 대한 토론과 경험을 공유 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식 환우를 위한 건강강좌 개최



본원은 지난 11월 22일 본관 3층 강당에서 '이식 환우를 위한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건강강좌에서는 이창화 신장내과 교수가 '이식 전 건강관리와 정기검사', 강종명 신장내과 교수가 '이식후 건강관리', 배현주 감염내과 교수가 '이식 후 감염과 예방접종', 김소연 영양팀 영양사가 '이식 후 영양관리', 권오정 장기이식센터 소장이 '이식에 관한 궁금증 및 질의응답'을 주제로 강의했다.

'제6회 감염관리 주간행사' 개최



본원은 지난 12월 2일 본관 3층 강당에서 '제6회 감염관리 주간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이양순 감염관리전담 교수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Infection control manager' 선포식에 이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김세은 조사관이 '감염관련 의료분쟁사례'를 주제로 강의했다.

'수술로봇 실용화 기술' 세미나 개최



본원 신경외과 김영수 교수가 소장으로 있는 창의수술기술연구소에서는 지난 12월 16일 의과대학 계단강의동에서 '수술로봇 실용화 기술 및 신의료기 기술 개발 현황'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개원 21주년 개원기념식' 개최



본원은 지난 10월 31일 본관 12층 사랑의 실천홀에서 '제21주년 개원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김경헌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김재민 병원장, 박훤겸 부원장 등 주요 보직자와 교직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병원발전에 공로가 큰 모범직원 표창에 이어 우수병동, 우수검사실, 우수부서, 한양교수 홍보상, 감사장 시상이 이어졌다.

구리시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강좌 개최



본원은 구리보건소 지하 1층 강당에서 건강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11월 4일에는 신경외과 김충현 교수가 '두통이야기', 12월 2일에는 내분비대사내과 이창범 교수가 '당뇨병 환자 장수하기'를 주제로 강의했다.

눈의 날 기념 특강



본원 안과는 지난 11월 11일 구리보건소 지하1층 강당에서 '눈의 날'을 기념하여 '우리아이를 위한 눈 건강'을 주제로 안과 조희윤 교수가 '소아 안과질환의 중요성', 안과 임한웅 교수가 '우리 아이 눈 건강 챙기기'에 대한 강의를 했다.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개시



본원은 스마트폰 하나로 진료 예약부터 수납까지 가능한 스마트폰 헬스케어 솔루션 '엠케어'를 12월 5일부터 개시했다. '엠케어' 서비스는 긴 대기시간, 번거로운 이용절차로 환자들의 불편함이 큰 기존의 진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된 IoT 기반의 스마트 헬스케어 솔루션이다. 스마트폰 하나로 진료 예약부터 수납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해결할 수 있어 진료 카드를 별개로 소지할 필요가 없다.

경기북부병무지청과 협약식



본원은 지난 12월 14일 본관 12층 강당에서 경기북부병무지청과 '병역명문가 우대지원 및 진료지정 병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의료서비스 편의 제공 ▲건강진단 상호 협의 이행 ▲보건향상 및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 사업 등이며 대상은 병역명문가와 병무지청 직원, 가족이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2016 성과보고회' 개최



본원은 지난 12월 16일 본관 1층 로비에서 한 해 동안의 성과를 돌아보기 위한 '2016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조수경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보고회에서는 2016년 한 해 동안 본원에 있었던 다양한 일들을 동영상으로 시청했으며, 전재범 기획분과위원장의 성과보고도 진행됐다.
배상철 병원장은 인사말에서 "본원은 모든 직원의 헌신과 노력으로 많은 발전과 성장을 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질환별 특성화와 난치성질환 치료의 메카로서 4차 병원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사, 동정



오재원 교수, 알레르기임상면역학회 초청 강연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소아청소년과 오재원 교수가 지난 10월 17~20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2016년 아시아태평양 알레르기임상면역학회 학술대회'에 초청되어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이영호 교수, 학술공로상 수상

한양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이영호 교수가 지난 10월 28일 고려대학교 유광사홀에서 열린 '2016년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뛰어난 학술업적과 백혈병소아암 환자들의 치료성적 향상의 기반을 다진 공로로 학술공로상을 수상했다.



김정목 교수,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미생물학교실 김정목 교수가 지난 11월 3일 제주도 켄싱턴리조트에서 열린 '제4회 한국 생물안전 컨퍼런스'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윤호주 교수,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차기 이사장 선출

한양대학교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윤호주 교수가 지난 11월 5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6년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추계학술대회' 정기총회에서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차기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임한웅 교수, 신진학술상 수상

한양대학교병원 안과 임한웅 교수가 지난 11월 5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116회 대한안과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눈 운동 및 사시 각을 측정할 수 있는 진단기기 개발을 한 성과를 인정받아 신진학술상을 수상했다.



박용천 교수, 환태평양정신의학회 부회장 선출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박용천 교수가 지난 11월 5일 대만 카오슝에서 개최된 환태평양정신의학회(PRCP : Pacific Rim College of Psychiatrists) 총회에서 환태평양정신의학회 2016~2018년 회기의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박예수 교수, 학회장 취임 및 수상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정형외과 박예수 교수가 지난 11월 12~13일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열린 대한골다공증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제8대 대한골다공증학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날 박 교수는 학회 회장취임과 함께 '골다공증을 동반한 척추 질환 환자의 수술적 치료'를 연제로 우수포스터상을 수상했다.
또, 지난 11월 26일에는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강당에서 거행된 '대한골연부조직이식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대한골연부이식학회 제17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배현주 교수, 정부포장 수상

한양대학교병원 감염내과 배현주 교수가 지난 11월 17일 강원도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열린 '2016년 감염병관리 컨퍼런스'에서 다제 내성균 등 감염병 원인균 관련 다양한 연구활동 등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염병관리 분야 정부포장을 수상했다.



이광현 병원장, '인권선언문' 낭독

한양대학교병원 이광현 병원장은 '세계인권의 날'을 기념하여 '인권선언문' 낭독에 의료인대표로 참여했다. 대한민국 각계각층 30인 대표로 구성된 '인권선언문 낭독 동영상'은 지난 12월 9일 KBS 아트홀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제68주년 및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제15주년 기념식'에서 방영됐다.



배상철 교수,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류마티스내과 배상철 교수가 지난 12월 15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2016년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난치성 류마티스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김현진 간호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 표창 수상

한양대학교병원 김현진 간호사가 지난 12월 15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대회의실에서 국내 약물감시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언론 속 한양인

TV와 신문에 등장한 한양人을 소개합니다.
2016년 10월 ~ 2016년 11월



한양대학교병원 **노영석 피부과 교수** TV조선[스페셜]/ 10월 1일/ 내 몸을 지키는 면역력 시베리아 검은 보석을 찾아서 **안성준 안과 교수** YTN[뉴스]/ 10월 3일/ 안구건조증 조심 **임한웅 안과 교수** YTN사이언스/ 10월 7일/ 건조한 가을철 눈 건강 지키는 방법은? **노성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연합뉴스TV/ 10월 10일/ 산후우울증 출산 전부터 대비, MBCR[뉴스의 광장]/ 10월 11일/ 산후 우울증, 증상과 치료는?, YTN사이언스/ 10월 21일/ 고독의 계절, 가을타는 이유는? **이항락 소화기내과 교수** KBS1R[라디오주치의]/ 10월 13일/ 위장질환 **김정태 성형외과 교수** SBS[세상에 이런일이]/ 10월 20일/ 평범함을 찾고 싶은 33살 현희씨의 간절한 소망 **하태경 외과 교수** MBC[리얼스토리눈]/ 10월 24일/ 위암 말기 엄마, 왜 식당 노예로 살았나 **김연환 성형외과 교수** YTNR[신율의 새출발 새아침]/ 10월 25일/ 내 얼굴에 무허가 실이? MBC[나누면행복]/ 11월 24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특집 **김태곤 재활의학과 교수** KBS2TV[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0월 25일/ 참다가 살이 썩기까지? 손발 시림과 저림 **이형중 신경외과 교수** 연합뉴스TV/ 10월 27일/ 만성질환자 지금부터 건강관리 **최중섭 산부인과 교수** 연합뉴스TV/ 11월 6일/ 자궁경부암, 20~30대 위협… 정기검진이 답, KTV[이슈본]/ 11월 11일/ 자궁경부암 백신, 맞아도 돼나? **신진호 심장내과 교수** YTN사이언스/ 11월 10일/ 의료기기로 파고든 AI… 정확하게 혈압 측정 **김용주 소아청소년과 교수** EBS[뉴스]/ 11월 15일/ D-2… 수험생 건강관리 법은? **전대원 소화기내과 교수** SBS[모닝와이드]/ 11월 18일/ 헛개가 간에 안 좋다? **송창면 이비인후과 교수** KBS1TV[특집다큐멘터리]/ 11월 19일/ 면역력의 열쇠, 안삼 **임영효 심장내과 교수** 연합뉴스TV/ 11월 23일/ 올해 잦은 한파 예보에 할랑질환 '주의보' **이광현 정형외과 교수** KBS1R[라디오주치의]/ 11월 30일/ 손목통증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오재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KBS1R[라디오주치의]/ 10월 1~2일, 7~9일, 14~16일, 21~23일, 28~30일, 11월 4~6일, 11~13일, 18~20일, 25~27일/ 뮤직테라피 **최준호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연합뉴스TV/ 10월 12일/ 가을볕은 건강 주치의, 11월 15일/ 수능 당일, 이것만은 꼭 지키세요 **정진환 신경외과 교수** KBS1TV[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0월 18일/ 뇌혈관질환 **조형필 재활의학과 교수** KBS1TV[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0월 25일/ 손발 시림과 저림 **이창범 내분비대사내과 교수** KBS1TV[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월 16일/ 당뇨 **박환철 심장내과 교수** MBN[스마일어게인]/ 11월 24일/ 갱년기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박시복 관절재활의학과 교수** MBN[뉴스]/ 10월 22일/ 신발이 건강 결정 **최찬범 류마티스내과 교수** KBS1TV[101세의 프로포즈]/ 10월 30일/ 류마티스관절염, 조기 치료가 열쇠, 연합뉴스TV/ 11월 14일/ 감기인 줄 알았는데 관절염이었다… **배상철 류마티스내과 교수** EBS[명의]/ 11월 18일/ 내가 나를 공격한다, 류마티스질환

NEWS Newspaper

한양대학교병원 **박동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 조선일보/ 10월 5일/ 독감 예방 접종 10~11월이 적기… **신동호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 조선일보/ 10월 5일/ 중장년 흡연자 60%, COPD 증상, 경향신문/ 10월 13일/ 오래 피워 찜찜한 당신… 폐기능 검사를 **고주연 피부과 교수** 조선일보/ 10월 11일/ 깨알 주근깨 · 큰 기미, 복합 레이저로 한 번에 치료 **김영수 신경외과 교수** 중앙일보/ 10월 17일/ 위 절제 후 어질어질 저혈당 증세 **김희태 신경과 교수** 조선일보/ 10월 19일/ 파킨슨병 연평균 8% 증가 **최웅환 내분비대사내과 교수** 조선일보/ 10월 19일/ 사망 위험 높이는 골다공증 2차 골절 **김정태 성형외과 교수** 신생언론지/ 10월 20일/ 마음 아픈 현희씨, 신경섬유종 치료는?, 이데일리 SPN/ 10월 21일/ 신경섬유종 사연에 기부 사이트 마비 **전대원 소화기내과 교수** 국민일보/ 10월 24일/ C형간염 두려워 마세요, 서울신문/ 10월 31일/ 술 끊은 당신, 야식도 끊어야 지방간 탈출 외 1건 **김연환 성형외과 교수** 경향신문/ 10월 24일/ 무허가 주름성형 실 파문 외 1건, 브릿지경제/ 11월 7일/ 내가 받은 실리프팅, 무허가 실 쓰였다? **박현경 소아청소년과 교수** 조선일보/ 10월 26일/ 모유 촉진용 약 돔페리돈, 적정량 쓰면 산모 · 신생아 둘 다 안전 **박성열 비뇨기과 교수** 중앙일보/ 10월 31일/ 소변 자주 마렵다는 아이, 요로감염 검사해 봐야 **김상헌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 조선일보/ 11월 3일/ 노년층, 감기약 먹어도 부작용 잘 생겨 **호정규 산부인과 교수** 조선일보/ 11월 3일/ 입덧 방치하면 조산 · 저체중아 출산 위험 **김동선 내분비대사내과 교수** 국민일보/ 11월 7일/ 환절기 · 겨울철 당뇨병 관리 **안동현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국민일보/ 11월 7일/ 공황장애? 피해자 코스프레?… 순실은 왜 그랬을까 **오성희 소아청소년과 교수** 세계일보/ 11월 14일/ 연간 125억원 쏟아붓는 수두 예방접종… 효과는 미미 **노영석 피부과 교수** 조선일보/ 11월 17일/ 젖은 비듬 생기면 남성형 탈모 **민아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서울신문/ 11월 21일/ 수면 부족은 자살 유발… 그 위험한 진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충현 신경외과 교수** 국민일보/ 10월 2일/ 면역세포치료제, 교모세포종 생존기간 연장 · 질환조절 30% 증가 **고성호 신경과 교수** 국민일보/ 10월 13일/ 한양대 · 하버드대 연구진, 뇌신경 손상질환 새 치료 가능성 제시 **한동수 소화기내과 교수** 서울경제신문/ 11월 29일/ "염증성 장질환자에게 화장실 양보해주세요.", 스포츠한국 / 11월 29일/ 염증성 장질환 환자를 위한 화장실 우선 이용 배려 캠페인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조수경 류마티스내과 교수** 월간 잡지/ 10월 1일/ 내 몸을 갉아먹는 병 류마티스 **전재범 류마티스내과 교수** 한겨레/ 10월 6일/ 통풍 관리법, 회식 잦은 남성 통풍 주의보 **최찬범 류마티스내과 교수** 월간 잡지/ 11월 1일/ 바람만 스쳐도 아픈 통풍 뚝뚝한 대처법

Event

Quiz



한양대학교병원이 2017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권역 내 최후의 의료를 책임지는 이 센터로 다시 태어납니다. 지난해 서울 동남권역에서 유일하게 한양대학교병원이 선정된 이것은 무엇일까요?

QR코드를 앱으로 스캔하면 한양대학교의료원 블로그(news.hyumc.com)로 이동합니다.
소식지와 블로그에 있는 [한양토픽]을 참고하세요.
2월 17일까지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http://wp.me/p70KzE-4sf

*스마트폰에서 QR코드 리더앱을 다운받아 실행할 수 있습니다.

11+12월호 이벤트 당첨안내

많은 분들이 지난호 이벤트에 참여했습니다. 당첨된 10분께는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렸습니다.

당첨자

백**	bmh101***@naver.com	김**	rioh***@naver.com	박**	spring_***@naver.com	허**	shjeo***@naver.com	이**	sook112***@hanmail.net
장**	zzang9***@hanmail.net	전**	n***@kepco.co.kr	이**	sandyle***@naver.com	김**	kimar4***@naver.com	방**	olafsei***@gmail.com

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모금 캠페인

'함께 실천하는 한양사랑'

Together & Tomorrow 모금 캠페인이란?

한양대학교병원과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이 힘찬 미래를 향해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매월 일정 금액의 기부금을 급여공제, 무통장 입금 또는 자동이체(CMS)를 통해 사용 용도를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는 모금 캠페인입니다.

사용 용도

- 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 한양대학교병원 암센터 건립기금
-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신관 신축기금
-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연구중심병원 발전기금

※ 발전기금은 법에 의거하여 시설, 연구, 교육, 학술 활동 등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여 대상

한양대학교의료원을 아껴주시는 동문, 환자 및 보호자, 학생 및 학부모, 재단 가족 및 교직원, 일반인 등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발전기금을 기부해주시는 분들께는 세금공제와 함께 기부금에 따른 예우 혜택이 있습니다.

약정 방법

- 온라인 약정하기 : 한양대학교의료원 홈페이지(www.hyumc.com) ⇨ 발전기금 icon 클릭 ⇨ 함께 실천하는 한양사랑 약정서 다운로드 ⇨ 약정서 작성(서명) ⇨ 팩스(02-2296-3806) 또는 이메일 송부(hmcfund@hyumc.com)

※ 문의 : 한양대학교의료원 대외협력실 대외홍보팀
Tel. 02-2290-9535~6

기부자 명예의 전당

이 명예로운 자리에 귀하의 소중한 이름을 새기겠습니다

〔2천만 원 이상〕



차상석

〔1천만 원 이상〕



하헌영

〔1천만 원 이상〕



김형수

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2016년 10월 ~ 2016년 11월 기부자 명단

1천만 원 미만~ 500만 원 이상

성명	직장명(소속)
송병주	하나안과의원
이선이	한양대학교구리병원

500만 원 미만~ 100만 원 이상

성명	직장명(소속)
박재일	제일내과의원
임병성	새생명일반내과의원
서인석	시원한 이비인후과
안경성	한양학원 재단법인
오영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이동규	이동규내과
태암내과의원	
이원희	현대자동차
홍동균	본이비인후과의원

100만 원 미만~ 50만 원 이상

성명	직장명(소속)
김경헌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순길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재민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윤영선	한양대학교병원

50만 원 미만~ 10만 원 이상

성명	직장명(소속)
강대진	우리들산부인과의원
강민호	안과
강일규	강일규이비인후과
강창남	정형외과
고란주	간호국
고성호	신경과
고아라	산부인과
고재성	고이비인후과의원
곽인영	곽이비인후과의원
구선완	인사총무팀
국은영	간호국
김경화	본관11층
김금옥	중앙공급실
김남기	재무팀
김대호	정신건강의학과
김도윤	정형외과
김동섭	KD밝은안과
김문성	김문성이비인후과의원
김미혜	본관11층
김민규	외과
김범석	이침이비인후과소아과
김봉유	원무팀
김선기	영상의학과
김승현	신경과
김양옥	신생아실
김영보	홍보팀
김영호	정형외과
김옥중	고객지원팀
김용수	영상의학과
김용호정신건강의학과의원	
김우길	시설팀
김운용	기획팀
김윤영	치과
김이석	정형외과
김자혜	소아청소년과
김정수	피부과
김종헌	정형외과
김주형	본이비인후과의원
김준현	애스앤미안과의원
김지영	핵의학과
김지은	감염내과
김창렬	소아청소년과
김창선	응급의학과
김충현	신경외과
김태승	정형외과
김태형	호흡기내과
김한준	외과
김현욱	의료정보팀
김현조	킴스의원
김회숙	약제팀
남승혁	흉부외과
남영자	마취후회복관리실
남정현	명예교수
노선균	흉부외과
노정환	병리과
류제일	신경외과
명동안과의원	
문지용	호흡기내과
문진화	소아청소년과
문홍상	비뇨기과
박기철	정형외과
박동우	영상의학과
박미라	외과계중환자실
박성욱	물류팀
박시복	재활의학과
박예수	정형외과
박용미	본관9층
박용천	정신건강의학과
박원희	치과
박일규	진단검사의학과
박주원	의무기록팀
박지호	간호국
박찬혁	소화기내과
박창구	시설팀
박태선	호흡기내과
박혜경	코코이비인후과
박환철	심장내과
박훤겸	외과
박희정	진단검사의학과
반은주	제3중환자실
방소영	류마티스내과
백근만	운영지원국
변순현	의무기록팀
서우영	정형외과
서정원	영상의학과
설인준	소아청소년과
신정철	성남이안과
성민철	안과
성외순	부속실
성정순	내과계중환자실
손주현	소화기내과
손한숙	약제팀
송종훈	정형외과
신대현	상쾌한이비인후과
신동한	원무팀
신순교	응급의료센터
신용운	안과
신우종	마취통증의학과
신인철	약리학교실
신정훈	심장내과
신창식	신창식 이비인후과
심경아	본관11층
심재향	통증의학과
여광호	진단검사의학과
염종훈	마취통증의학과
오미경	마취통증의학과
오재원	소아청소년과
원영웅	혈액종양내과
유교상	소화기내과
유미경	임상연구지원팀
유정아	영상의학과
유창성	진단검사의학과
윤명희	재활의학과
윤여필	물류팀
은창수	소화기내과
이경섭	이경섭정신과의원
이경식	감염관리팀
이경희	본관10층
이광현	정형외과
이규옹	신경과
이상훈	이상훈이비인후과의원
이숙희	동관7층
이슬아	본관11층
이승욱	비뇨기과
이승환	이비인후과
이양섭	원무팀
이영석	정형외과
이유경	영상의학과
이은희	본관11층
이정일	정형외과
이정한	산부인과
이제인	약제팀
이종	교육연구팀
이종숙	감염관리팀
이종희	본관5층
이주학	신장내과
이주한	영상의학과
이진규	정형외과
이창범	내분비내과
이철범	흉부외과
이혜순	류마티스내과
이화준	QI팀
임동수	임신경정신과의원
임상혁	영상의학과
임완예	원목실
장성호	재활의학과
장재선	간호국
장지희	건강관리팀
전석분	본관7층
전선희	회복실
전용철	소화기내과
전우재	마취통증의학과
정경희	본관6층
정규성	정형외과
정미선	원무팀
정수경	간호국
정우성	새움병원
정재윤	소화기내과
정재호	이비인후과
정재홍	정형외과
정진혁	이비인후과
정진환	신경외과
정희숙	보험심사팀
조기섭	진단검사의학과
조상윤	마취통증의학과
조아라	영양팀
조영아	소통의원
조영완	운영지원국
조영진	내과중환자실
조재민	조은이비인후과의원
조희윤	안과
지용배	이비인후과
채영림	재무팀
채우석	채우석이비인후과
최도전	본관8층
최미경	간호국
최민영	외과
최성일	심장내과
최성환	최성환 이비인후과
최승석	성형외과
최정혜	혈액종양내과
최준석	탑이비인후과의원
최준호	정신건강의학과
최충혁	정형외과
최혁중	응급의학과
최호진	신경과
최홍웅	비뇨기과
하루미	수술실
한동수	소화기내과
한명훈	신경외과
한상웅	신장내과
한승훈	재활의학과
함수미	응급의료센터
홍성숙	내시경실
홍의호	핵의학과
황규태	정형외과
황성우	경영지원실
황의순	진료협력팀
황인자	간호국

10만 원 미만

성명	직장명(소속)
강다운	본관9층
강문주	본관11층
강민아	진단검사의학과
강석범	핵의학과

성명	직장명(소속)
강성찬	외과
강성훈	진단검사의학과
강신창	핵의학과
강영의	본관6층
강윤성	의무기록팀
강은미	본관10층
강지민	마취후회복관리실
강지원	기획팀
강해영	영상의학과
강혜숙	영양팀
고희경	2층내과
공경숙	신생아중환자실
공지현	심장센터
곽동원	영상의학과
권난희	영양팀
권미화	호흡기내과
권보미	내과중환자실
권선미	본관6층
권연희	영양팀
권오균	인사총무팀
권용덕	마취통증의학과
권유진	응급의료센터
권은진	이비인후과
권혁천	고객지원팀
권현숙	본관5층
권혜영	인공신장실
김경수	본관6층
김경숙	항암조제실
김경실	본관5층
김경우	진단검사의학과
김광영	고객지원팀
김규식	비뇨기과
김금례	인공신장실
김기라	인사총무팀
김기석	내시경실
김나영	본관18층
김다솜	약제팀
김대건	영상의학과
김도와	내시경실
김동관	진단검사의학과
김란	본관5층
김령	영양팀
김령희	재무팀
김명환	영양팀
김미라	마취후회복관리실
김미라	성형외과
김미라	영상의학과
김미성	간호국
김미성	마취후회복관리실
김미성	인공신장실
김미화	보험심사팀
김미희	동관7층
김민선	영양팀
김민아	본관10층
김민정	이비인후과
김민정	인공신장실
김민정	중앙공급실
김민희	2층내과
김민희	국제행정지원팀
김백수	동관7층
김병숙	원무팀
김보미	신경외과
김상미	본관10층
김상훈	약제팀
김상희	본관11층
김석현	정신건강의학과
김선영	고객지원팀
김선영	영상의학과
김선주	인공신장실
김성애	본관17층
김성철	병리과
김성훈	영상의학과
김세정	본관11층
김소란	본관10층
김소연	본관10층
김수연	보험심사팀
김숙미	영상의학과
김순식	노동조합
김승희	인공신장실
김아름	본관5층
김애경	내과중환자실
김애경	본관20층
김양선	인공신장실
김연정	재무팀
김연주	병동서무
김영미	이비인후과
김영선	본관5층
김영신	치과
김영연	심장센터
김영일	홍보팀
김영자	진단검사의학과
김영훈	물류팀
김원원	영상의학과
김은미	신생아중환자실
김은실	소아청소년과
김은주	응급의료센터
김은지	본관10층
김은희	수술실
김인호	약제팀
김자윤	해민정신건강의학과
김재희	영상의학과
김정달	진단검사의학과
김정민	본관10층
김정숙	고객지원팀
김정안	본관7층
김정언	외과
김정희	영양팀
김주희	응급의료센터
김준식	진단검사의학과
김중식	수술실
김창금	영양팀
김철한	재무팀
김초롬	본관5층
김초롱	본관6층
김춘애	영양팀
김태근	병리과
김태호	재활의학과
김택순	조혈모세포이식센터
김하연	응급의료센터
김현일	외과
김현주	본관6층
김현진	재활의학과
김현창	물류팀
김현희	2층내과
김형근	진단검사의학과
김형석	약제팀
김형주	약제팀
김혜림	감염관리팀
김혜원	간호국
김황룡	진료부
김효준	물류팀
김휘원	본관5층
김희나	주사실
나소정	수술실
나윤숙	2층내과
나인철	재활의학과
나현영	제3중환자실
남기준	원무팀
남순영	본관5층
노광규	인사총무팀
노옥경	제3중환자실
노옥석	동관7층
노창완	영상의학과
류중백	시설팀
모지은	소화기내과
문미영	의무기록팀
문미영	이식센터
문상희	내과중환자실
문영민	영상의학과
문재봉	시설팀
문정희	본관9층
문한솔	외과
문희애	본관6층
민현숙	약제팀
박경림	보험심사팀
박경미	비뇨기과
박경숙	간호국
박경희	중앙공급실
박근배	보험심사팀
박명경	외과
박명호	환자이송반
박미숙	영양팀
박미순	원무팀
박미옥	교육연구팀
박상혁	영양팀
박선아	진단검사의학과
박선영	내과중환자실
박선희	마취후회복관리실
박성찬	진단검사의학과
박소은	영양팀
박수미	내과중환자실
박수정	수술실
박순구	안과
박연희	수술실
박예진	본관8층
박용범	기획팀
박유정	감염관리팀
박은수	본관10층
박은영	인공신장실
박은형	고객지원팀
박응범	비상계획계
박점현	본관11층
박정우	신경외과
박주은	분만실
박지경	영양팀
박지애	QI팀
박지혜	인공신장실
박진옥	보험심사팀
박진희	인공신장실
박춘아	수술실
박현정	피부과
박현혜	본관8층
박현화	마취후회복관리실
박혜정	건강검진센터
방민주	제3중환자실
방성주	대외홍보팀
방지훈	신경외과
배순석	수술실
배은희	보험심사팀
백필선	외과
백형정	약제팀
백혜연	수술실
변다솜	본관10층
서명진	주사실
서병갑	영상의학과
서소연	소아청소년과
서소연	응급의료센터
서승희	내과중환자실
서승희	본관9층
서영남	본관8층
서영은	본관5층
서현주	진료협력팀
설명길	의료정보팀
성경희	본관7층
성명순	사회복지팀
성혜윤	본관8층
손영성	본관9층
손화선	대외홍보팀
송명선	본관10층
송은경	진단검사의학과
송주영	2층내과
송현수	시설팀
송훈남	재활의학과
신명희	치과
신미숙	진단검사의학과
신수지	수술실
신재철	의무기록팀
신정미	영양팀
신정은	인공신장실
신철우	진단검사의학과
신현주	인공신장실
신혜민	수술실
신희숙	응급의학과
심규진	본관7층
심규형	영상의학과
심요라	보험심사팀
안대웅	교육연구부
안명현	병리과
안미경	영양팀
안삼순	2층내과
안석태	영상의학과
안선미	내과중환자실
안신영	본관9층
안유정	내과중환자실
안은종	의료정보팀
안은진	2층내과
안이슬	본관10층
안정미	수술실
안정은	본관11층
안정현	이비인후과
안창선	물류팀
안치원	응급의학과
안혜옥	본관20층
양길녀	본관7층
양명화	간호국
양미영	영양팀
양수용	세탁실
양은주	낮병동
양현	간호국
양효선	약제팀
엄기숙	영양팀
엄혜정	수술실
여미진	본관10층
여은주	본관6층
오금복	정형외과
오기향	비뇨기과
오미혜	정신건강의학과
오연이	영양팀
오영숙	고객지원팀
오유선	본관9층

성명	직장명(소속)
오재훈	마취통증의학과
오정님	영양팀
오정숙	재활의학과
오지현	주사실
오진영	2층내과
오홍석	
오화경	수술실
오희순	응급의료센터
옥상열	홍보팀
우순희	수술실
우정미	고객지원팀
원혜정	부속실
원홍석	인사총무팀
위영현	약제팀
유고은	본관10층
유미화	물류팀
유병호	내과중환자실
유선길	건강검진센터
유선정	이비인후과
유숙	병리과
유영미	내과중환자실
유은희	제3중환자실
유정안	중앙공급실
유정자	마취후회복관리실
유주량	본관5층
유지학	인사총무팀
유헌영	물류팀
유현주	건강검진센터
유현주	마취후회복관리실
윤경주	응급의료센터
윤규리	본관10층
윤미영	본관8층
윤선미	영양팀
윤선애	본관6층
윤선희	영양팀
윤아름	본관10층
윤은정	신생아중환자실
윤인숙	본관20층
윤정아	외과
윤정희	약제팀
윤지선	본관6층
윤항순	진단검사의학과
윤현숙	마취후회복관리실
윤현순	고객지원팀
윤희정	인공신장실
음희재	내시경실
이가희	응급의료센터
이강연	비상계획계
이경은	영상의학과
이경철	기획팀
이경하	정신건강의학과
이경희	인공신장실
이관석	원무팀
이규택	신경과
이금란	인공신장실
이나리	본관10층
이나영	수술실
이두리	제3중환자실
이두종	핵의학과
이명숙	병리과
이명주	약제팀
이미경	보험심사팀
이미경	영양팀
이미란	본관6층
이미자	본관11층
이미정	본관10층
이미정	중앙공급실
이민지	본관5층
이민진	건강관리팀
이상미	제3중환자실
이상찬	차량계
이새롬	본관11층
이서윤	본관9층
이선영	본관6층
이선화	본관9층
이선희	원무팀
이성모	물류팀
이성미	신경외과
이소연	응급의료센터
이수연	시설팀
이수진	수술실
이숙	고객지원팀
이숙희	마취후회복관리실
이순자	본관5층
이승호	영상의학과
이연우	신생아중환자실
이연주	정형외과
이영미	신생아중환자실
이영주	2층내과
이예린	내과중환자실
이유리	제3중환자실
이윤미	심장센터
이윤진	응급의료센터
이은경	인사총무팀
이은명	약제팀
이은애	본관11층
이은영	신장내과
이은주	보험심사팀
이은형	본관6층
이은희	인공신장실
이정식	보험심사팀
이정애	병리과
이정은	시설팀
이정인	당뇨센터
이정화	소아청소년과
이정화	신경과
이정화	이비인후과
이종열	치과
이주영	인사총무팀
이주현	본관6층
이주현	중앙공급실
이지현	심장센터
이진주	응급의료센터
이하랑	마취후회복관리실
이현아	본관7층
이현주	본관7층
이현주	원목실
이현중	영상의학과
이혜정	수술실
이호남	고객지원팀
이호문	영상의학과
이호용	영상의학과
임경숙	사회복지팀
임경순	신경외과
임다현	본관10층
임선경	본관11층
임연희	진단검사의학과
임은실	응급의료센터
임은자	이비인후과
임인자	수술실
임인현	병동서무
임정연	시설팀
임주아	정형외과
임지영	영양팀
임화영	비뇨기과
장선정	신생아중환자실
장윤주	약제팀
장정아	육아지도실
전경신	본관8층
전미선	간호국
전형수	대외홍보팀
전효선	수술실
정경은	본관5층
정기영	영상의학과
정대천	원무팀
정선주	내과중환자실
정선희	인공신장실
정수정	본관5층
정예용	심장센터
정유정	본관17층
정은영	수술실
정일웅	의료정보팀
정임증	응급의료센터
정재순	마취통증의학과
정정미	본관10층
정지현	응급의료센터
정현정	진단검사의학과
정혜영	내과중환자실
정훈	의료정보팀
조경숙	인공신장실
조광희	본관9층
조구성	영상의학과
조규선	영상의학과
조문형	원무팀
조은영	영상의학과
조인옥	진단검사의학과
조현교	진단검사의학과
조현일	시설팀
조형필	재활의학과
조환영	중앙공급실
주찬미	본관7층
지미경	보험심사팀
지은아	산부인과
지혜정	의료정보팀
진수희	내시경실
진춘희	영양팀
천경희	의료정보팀
천다혜	본관9층
천영복	물류팀
천은미	소아청소년과
천은선	외과
최규호	마취통증의학과
최다울	신생아실
최문정	본관5층
최미옥	치과
최민희	마취후회복관리실
최선미	인공신장실
최선희	진단검사의학과
최성은	교육연구팀
최세연	원무팀
최소담	영상의학과
최순애	인공신장실
최승희	본관10층
최신자	진단검사의학과
최영선	인공신장실
최윤희	신생아중환자실
최은영	본관8층
최재범	원무팀
최정연	대외홍보팀
최정훈	2층내과
최종석	영상의학과
최종은	보험심사팀
최진실	본관5층
최창순	동관7층
최현구	본관8층
최현주	진단검사의학과
최혜옹	시설팀
최희영	QI팀
표은주	진단검사의학과
하경애	마취후회복관리실
하은영	약제팀
하지윤	원무팀
한미경	신생아중환자실
한상운	원무팀
한수진	본관10층
한승희	수술실
한아영	수술실
한정연	성형외과
한주화	심장센터
한초롱	본관10층
한현남	영양팀
한현수	의료정보팀
한현정	보험심사팀
함명자	보험심사팀
함연순	외과
허성미	본관8층
허정현	심장센터
허지선	본관7층
허지영	병동서무
허태영	진단검사의학과
현순희	소화기내과
홍대영	인사총무팀
홍민영	비뇨기과
홍숙의	병동서무
홍은미	내과중환자실
홍은자	내시경실
황미향	영상의학과
황성환	교육연구부
황성희	정형외과
황영순	본관5층
황정선	마취후회복관리실
황준호	의료정보팀
황혜연	본관10층
황희수	영상의학과

기부금 명단은 가나다 순입니다.

Hanyang Calendar

1 January

1.3 TUE
한양대학교병원
사랑의 음악회
- 한양오케스트라
  오후 12시 30분
  본관 1층 로비

1.6 FRI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건강강좌
겨울철 운동방법과 스트레칭
- 재활의학과 한승훈 교수
  오후 3시
  구리시 보건소 지하 1층

1.9 MON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랑의 음악회
오카리나 연주
- 김욱(한양대 관현악 졸)
  오후 2시
  7층 정신건강의학과 안정병동

1.13 FRI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랑의 음악회
- 이종열(치과)
  오후 12시 30분
  본관 1층 로비

1.18 WED
한양대학교병원
사랑의 음악회
한양밴드
- 맹인국안연주단
  오후 12시 30분
  본관 1층 로비

1.20 FRI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랑의 음악회
합창
- 에벤에셀
  오후 12시 30분
  본관 1층 로비

2 February

2.3 FRI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건강강좌
내 어깨 왜 아픈가요?
- 정형외과 송종훈 교수
  오후 3시
  구리시 보건소 지하 1층

2.6 MON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랑의 음악회
내밀음악회
- 색소폰, 바이올린, 플룻 연주
  오후 7시
  본관 1층

2.10 FRI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랑의 음악회
- 김선영(한양밴드 보컬리스트/영상의학과)
  오후 12시 30분
  본관 1층

2.13 MON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랑의 음악회
- 박양수
  (클래식 기타, 아코디언 연주)
  오후 2시
  7층 정신건강의학과 안정병동

2.17 FRI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랑의 음악회
- 안명진(바이올린, 비엔나 국립대학)
  오후 12시 30분
  본관 1층 로비

2.24 FRI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랑의 음악회
- 우원호(클래식 기타 연주)
  오후 12시 30분
  본관 1층 로비

2.25 SAT
한양대학교병원
건강강좌
루게릭병의 최신치료
- 신경과 오기욱 교수
  오전 10시
  본관 3층 강당

한양대학교병원 외래 진료 시간표

■ **대표전화** : 02 - 2290 - 8114 ■ **응급실** : 02 - 2290 - 8282 ■ **전화예약** : 1577 - 6382 ■ **진료의뢰센터** : 02 - 2290 - 9717 http://m.hyumc.com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소화기내과 2290-8303	최호순 윤병철 이오영 전대원 이항락 이강녕 곽주희 이지영 이혜영	수, 금 월, 목 월, 수, 토(3주) 월~목, 토(2주) 금, 토(1주) 화 월, 화, 목 수, 금, 토	월 수 화, 목 수, 금 월, 화 목, 금 월~수, 금 목	간질환, 담낭, 담도, 췌장 식도, 위, 장질환, 용종, 각종치료내시경 식도, 위, 장질환, 용종, 각종치료내시경 간질환 식도, 위, 장질환, 용종, 조기암, 내시경절제술, 각종치료내시경 식도, 위, 장질환, 용종, 조기암, 내시경절제술, 각종치료내시경 일반 소화기내과질환 일반 소화기내과질환 일반 소화기내과질환
심장내과 2290-8700	김경수 신진호 임영효 박진규	화, 목, 토(2주) 월,수,금 수, 금, 토(3주) 월,화,목,토(1주)	화, 금 수 월, 수 목	허혈성심장질환, 심혈관중재술, 심장줄기세포치료,협심증, 고혈압 심부전, 심혈관중재시술 허혈성심장질환(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심부전, 말초동맥질환, 일반심장질환 부정맥, 실신, 급사, 심장전기생리검사 및 전극도자절제술, 심박동기
신장내과 2290-8300	강종명 김근호 이창화 박준성 최종욱	월, 화, 수, 금 월, 금, 토(3주) 수, 목, 토(1,2주) 화, 목, 토(3주)	 화, 목 월, 금 월, 수 수	사구체신염, 만성신부전증, 신장이식, 혈액투석 전해질장애, 고혈압, 신부전, 부종, 복막투석 사구체신염, 신장이식, 혈액투석, 복막투석 일반 신장내과질환 일반 신장내과질환
내분비대사내과 2290-8300	안유헌 최웅환 김동선 박정환	월~목, 토(2주) 월화수금토(3주) 월, 수, 목 화, 토(3주)	수 월, 화 수, 목, 금	당뇨병, 갑상선, 골다공증, 비만 당뇨병, 뇌하수체, 갑상선 일반 내분비대사질환
호흡기 알레르기내과 2290-8302	윤호주 손장원 김상헌 박동원 구건우	월, 수 월, 화, 목, 금 화, 금, 토(2주) 수, 토(1주) 토(3주)	수, 목 월, 화 월, 화, 목 수, 금	폐암, 폐결핵, 폐렴, 간질성폐결핵 폐결핵, 폐암, 천식,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결핵, 폐렴, 폐암 천식, 알레르기, 면역성폐질환 일반 호흡기내과질환
중환자실	구건우	월~금	월, 화, 목	중환자실전담전문의(08:30~17:30)
혈액종양내과 2290-8300	이영열 박병배 엄지은	월, 수 화, 목 금	화, 목 월, 금 월, 화, 수	만성백혈병, 골수증식질환, 림프종, 골수종, 기타혈액질환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두경부종양, 뇌종양, 비뇨생식기계종양, 육종 급성백혈병, 골수이형성증, 재생불량성빈혈, 조혈모세포이식
감염내과	배현주	목	월, 목	감염질환, 불명열, HIV클리닉, 여행자클리닉
소아청소년과 2290-8380 재활클리닉▲	설인준 오성희 김남수 이영호 김용주 박현경 이현주 김자혜	화, 목 목, 금, 토(3주) 월, 수 월(구리) 월, 수, 토(1주) 화 토(2주) 목	월, 수 월, 화 목 화, 목 수, 목 수, 금 화	소아신경 및 근육질환, 소아간질 소아감염질환 소아심장질환 조혈모세포이식, 소아혈액, 소아암 소아소화기영양 육아상담실,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육아상담실,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소아내분비
육아지도실 2290-8871	박현경 이현주	월 수, 금		육아상담실,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육아상담실,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신생아 중환자실	이현주	수, 목, 금	월~금	신생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08:30~17:30)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신경과 2290-8367/ 8368 세포치료센터 &클리닉▲ 2290-9377 서관 7층	김주한 김승현 김희태 김현영 김희진 김영서 오기욱 박진석 하승현	월, 수 월·금(루게릭)▲ 목 화, 수, 목▲ 수▲, 금, 토(2주) 화▲, 금, 토(3주) 월, 화, 토(1주) 월▲, 금▲ 화, 토(2주) 수, 토(1,3주)	월, 수 월(루게릭)▲ 목(파킨슨)▲ 화, 수▲ 화▲, 금 월, 목 월▲, 수 목 금	간질, 실신, 수면장애, 하지불안증후군 말초신경 및 근육질환, 치매 및 루게릭병 이상운동질환(파킨슨), 손떨림, 뇌졸중 뇌졸중, 두통, 어지럼증, 경동맥협착 치매 및 인지기능장애, 뇌졸중 뇌졸중, 두통, 어지럼증 말초신경계질환, 근육병질환, 두통 말초신경 및 근육질환, 두통, 일반신경과질환 말초신경, 두통, 치매, 안면마비, 일반신경과질환
정신건강의학과 2290-8419	안동현 김석현 노성원 민아란	수 화, 금, 토(1주) 월, 목, 토(2,3주) 월, 수	월, 수, 목 화, 금 월, 목 목	소아정신의학, 발달장애, 과잉행동증후군 정신약물학,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중독질환,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인지장애, 조현병 소아정신의학
피부과 2290-8434	노영석 고주연 김정은 김은진	월, 화, 목, 토(2주) 해 외 월, 수, 토(1,3주) 금, 토(4주)	월 화, 금 화, 수, 목	아토피 피부염, 여드름, 탈모, 건선 연 수 피부미용, 레이저, 색소질환, 건선, 백반증, 대상포진, 무좀 및 진균성 질환, 피부암 일반 피부질환
외과 2290-8444	권성준 권오정 이경근 최동호 이강홍 정민성 하태경 안병규 김성후 윤태인	수, 금 월 화, 금 수, 목, 토(1주) 화, 목, 토(2주) 목 화 월, 토(3주) 금 금	 수 목 월 화 월, 목(만모통) 목 수, 금 화,수(만모통)	위, 십이지장질환 이식, 혈관질환 간, 담도, 췌장질환, 복강경수술 간, 간이식, 담도, 췌장질환, 복강경수술, 로봇수술 대장항문질환, 복강경수술, 로봇수술 유방암, 갑상선종양 대장항문질환, 복강경탈장수술 일반 외과질환, 복강경탈장수술 대장항문질환, 복강경수술, 지방종 유방질환, 유방암, 갑상선종양
소아외과	하태경	월		복강경/소아외과수술, 선천성질환, 탈장수술
흉부외과 2290-8461	김영학 정원상 김 혁 김혜선	화 화, 목 월, 수, 금	화, 금 화, 목 월, 수 	관상동맥질환, 심장판막질환, 심장이식 폐 및 식도외과, 종격동, 흉강경수술, 폐이식 심장판막질환, 선천성 심장질환, 흉강경수술, 대동맥수술 일반 흉부(폐, 종격동 및 식도 질환, 흉강경수술)
정형외과 2290-8473	김태승 이광현 최충혁 성일훈 강창남 이봉근 김이석 황규태 이진규 조영훈	토 월, 수, 금 월, 수 화, 목 월 해 외 목, 금 화, 목 화 금	월, 목, 금 수 화 월, 수 화 화 월, 목 수, 금	사지근골격계종양 클리닉, 소아정형외과학 수부외과클리닉(미세수술), 주관절학 슬관절클리닉(관절경학, 인공슬관절치환술), 스포츠의학 족부클리닉, 당뇨발, 변형교정, 스포츠의학 척추클리닉, 골다공증 연 수 고관절클리닉, 외상학, 골다공증, 스포츠의학 고관절, 골절, 외상(스포츠손상), 근골격계 다발성 손상 슬관절클리닉(관절경학, 인공슬관절치환술), 스포츠의학 견관절클리닉, 관절경, 외상학, 미세수술, 스포츠의학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외래 진료 시간표

■ **대표전화 :** 1644 - 9118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신경외과 2290-8491	고 용 김영수 백광흠 이형중 전형준 최규선 이건일	월, 수 화 월, 수 목 해 외 금, 토(2,3주) 금, 토(1주)	월 목 금 화 연 수 수 목, 금	뇌혈관질환, 미세극소침습뇌수술, 내시경뇌하수체 수술, 뇌신경질환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삼차신경통 및 통증성질환, 뇌종양 디스크, 요통, 척추질환, 내시경디스크수술, 척수종양 뇌혈관질환, 혈관내수술, 두부손상, 뇌졸중(중풍), 두통, 퇴행성 신경손상 뇌혈관질환, 혈관내수술, 두부손상, 뇌졸중(중풍), 두통, 퇴행성 신경손상
성형외과 2290-8560	안희창 김정태 윤진호 김연환 윤승기 임수연	수, 금 월, 금 월, 수 화, 목, 토(2, 4주) 토(1주) 토(3주)	월 수 목, 금 화 금 수	유방재건 및 성형, 선천성 얼굴기형, 레이노드병, 손재건 재건성형수술, 유방, 두경부, 사지재건, 미세수술, 미용성형 비만성형, 미용성형, 쁘띠성형 미세재건수술(사지재건), 안면골절 및 외상, 미용성형(코), 일반성형, 피부종양, 피부반흔교정, 욕창 일반성형외과질환 일반성형외과질환
산부인과 2290-8400	황정혜 최중섭 호정규 배재만 이원무 엄정민 이은현	화, 수, 목, 금 월, 수 월, 화, 목, 토(1,3주) 해 외 화, 목, 토(2,4주) 금, 토(1,3주) 월, 수	월 수, 금 화 연 수 화, 목 월, 수 금	일반 산부인과,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폐경, 불임, 시험관아기 일반 산부인과, 난소암, 자궁암, 로봇수술,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일반 산부인과, 고위험임신, 조산,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난소암, 자궁암, 일반산부인과, 로봇수술, 자궁경 및 복강경 수술 일반산부인과, 난소암, 자궁암, 로봇수술,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안과 2290-8570	엄기방 이병로 임한웅 안성준 김유정	월, 수 화, 목, 토(3주) 금, 토(4주) 토(1, 3주) 금, 토(2주)	금 목 월, 수 월, 화	녹내장, 백내장 망막, 유리체, 백내장, 포도막 소아안과, 사시, 안성형, 신경안과 망막, 유리체, 백내장, 포도막, 미숙아 망막증 외안부, 굴절교정, 백내장
이비인후과 2290-8580	박철원 김경래 태 경 조석현 송창면 정주환	화, 금, 토(3주) 목, 토(2주) 월, 수 월, 화, 토(1주) 수, 목, 토(4주) 금	화 월, 목 수 화, 금 월, 목 수	만성중이염, 난청, 어지러움증, 이명, 안면신경마비 부비동염, 알레르기성비염, 부비동내시경 두경부종양, 갑상선종양, 로봇갑상선수술, 경부종물, 음성장애 부비동염, 알레르기비염, 부비동내시경, 코골이, 코성형, 악안면외상, 수면무호흡 후두음성질환, 인후두역류질환, 소아이비인후과, PITA편도수술, 갑상선암, 두경부암 일반이비인후과, 부비동염, 알레르기비염, 난청, 어지럼증, 이명
비뇨기과 2290-8593	이춘용 박해영 김용태 박성열 이호원 조정기	월, 토(1주) 수, 금, 토(2주) 화, 목, 토(4주) 수, 목, 토(3주) 월, 토(2,4주) 화, 금, 토(1,3주)	화, 목 월, 수 수, 금 월 화, 금 목	복강경 및 로봇수술, 전립선질환, 신결석, 전립선암, 신장암, 방광염 신장이식 및 남성과학, 신결석, 전립선질환, 비뇨기질환 배뇨장애, 요실금, 전립선질환, 비뇨기종양, 신장질환, 신결석 전립선암, 신장암, 방광암, 복강경 및 로봇수술, 전립선질환, 신결석, 소아비뇨기 질환 전립선질환, 신결석, 배뇨장애, 방광염, 일본비뇨기과질환 비뇨기종양학, 로봇 및 복강경수술, 전립선질환, 요로결석
재활의학과 2290-9350	김미정	월, 수,금, 토(4주)	월, 수	소아재활, 근골격계재활, 노인재활, 뇌신경재활
방사선종양학과 2290-8614	전하정 박혜진	월, 수 월~금	화, 수, 목 월	방사선종양학 방사선종양학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핵의학과 2290-9260	최윤영 이수진	 토(1,3주)	수 월	갑상선 동위원소 치료 일반진료
치과 2290-8671	이영수 황경균 박창주 한지영 김태건 김주형 심광섭	목, 금 월, 화, 목 화, 목, 금 월~금 월, 화, 수 월, 화, 목 화, 금	월, 화, 목 월, 화 화, 목 화, 금 월, 화, 수, 금 월, 화, 목, 금 수	임플란트, 완전/부분틀니, 심미보철 턱얼굴성형수술(기형), 임플란트, 턱관절질환, 침샘질환(타액선), 코골이장치 턱얼굴성형수술, 임플란트, 턱관절질환, 치과전정법 치주질환, 치주성형, 치주조직재생, 임플란트 보존치료, 심미수복치료, 근관치료, 치아미백 심미교정, 설측교정, 급속교정, 수술교정 턱얼굴외상, 임플란트, 턱관절질환
맞춤형 비만치료센터 2290-9720	박훈기 황환식 박계영 김용주 하태경	월 수	목 금 월, 수 화	
가정의학과 2290-8738	박훈기 황환식 박계영	수, 금, 토(2주) 월, 화, 목, 토(4주)	월 화	스포츠의학 건강증진의학, 노인의학 건강증진의학
직업환경의학과 2290-9777	송재철 이수진	월, 화(2,4주), 목 화(3,5주), 수, 금	월, 화(2,4주), 목 화(3,5주), 수, 금	환경 및 산업의학, 직업성 천식 근골격계질환, 새집증후군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동관 1층 : 02-2290-9216, 9217, 9226

류마티스내과 2290-9216	유대현 배상철 전재범 김태환 성윤경 최찬범 조수경 이성원 남승완 권혁희	월, 화, 목, 토(1주) 월, 수, 목 화, 수, 금, 토(1주) 화, 목, 토(1주) 월, 화, 수, 금, 토(3주) 월, 수, 금, 토(3주) 월, 수, 목, 금, 토(1,3주) 월, 목, 토(1,4주) 화, 토(2,5주) 수, 토(3주)	화, 수 월, 목 목, 금 월, 화, 목 수 수, 금 월 화, 수 금 목	류마티스 · 골관절염, 성인형스틸병, 근염 류마티스 · 골관절염, 루푸스 류마티스 · 골관절염, 경피증, 통풍 강직성척추염,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 골관절염, 루푸스, 강직성척추염, 섬유근통, 쇼그렌병 류마티스 · 골관절염, 루푸스, 강직성척추염, 섬유근통, 쇼그렌병 류마티스 · 골관절염, 루푸스, 강직성척추염, 베체트병 류마티스 · 골관절염, 루푸스, 강직성척추염, 섬유근통, 쇼그렌병 류마티스 · 골관절염, 루푸스, 강직성척추염, 섬유근통, 쇼그렌병
관절재활의학과 2290-9226	박시복 이규훈	수, 금, 토(3주) 월, 화, 목, 토(2주)	월, 수 화, 목	족부재활, 류마티스재활, 근골격재활 족부재활, 관절재활, 스포츠의학
통증의학과 2290-9216	심재철	월, 수, 목, 금		신경병증성통증, 척추통증
골 · 관절외과 2290-9216	최충혁 이봉근	 해 외	월 	슬관절클리닉(관절경, 인공슬관절치환술), 류마티스슬관절염 연 수

한양대학교국제병원

서관 3층 : 02-2290-9550, 9551, 9552

종합검진 2290-9550 (ARS)	윤호주 박훈기 황환식 박계영 김정현	화 월~금, 토(2,4주) 월, 화, 목, 금	월, 화, 목 화, 수 월, 목 목, 금	폐암, 폐경핵, 폐렴, 간질성폐결핵 스포츠의학 건강증진의학, 노인의학 가정의학 Global healthcare, 심장내과
여행자 클리닉	배현주	수		감염질환, 불명열, HIV클리닉, 여행자 클리닉
성형외과 국제진료	김정태 김연환	월, 목 화, 금	수, 금 목	재건성형수술, 유방, 두경부, 사지재건, 미세수술, 미용성형 미세재건수술(사지재건), 안면골절 및 외상, 미용성형(코), 일반성형, 피부종양, 피부반흔교정, 욕창

* 2017년 1월 기준이며, 시간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진료는 각 외래로 문의 바랍니다.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소화기내과	손주현 한동수 전용철 은창수 유교상 박찬혁 정재윤	화 월, 목 월, 금 수, 금 화, 수, 토(2주) 목, 토(1,3주) 수, 목, 토(2주)	월, 목 화 수 월 목 수, 금 화, 금	간질환(간염,간경변증,간암) 쇼장, 대장질환(염증성 장질환, 대장암, 기능성 장질환) 소화기, 위장관질환 소화기, 위장관질환 담도, 췌장질환, 소화기질환 소화기, 위장관질환, 식도암, 위암 간질환(간염, 간경병증, 간암), 소화기질환
심장내과	김순길 박환철 신정훈 이용구	월, 화, 목, 금 수, 목, 토(1,3주) 월, 토(2주) 수	목 화 화, 수, 목 월, 수, 금	고혈압, 허혈성심질환, 심부전 고혈압, 부정맥질환 고혈압, 허혈성심질환, 심부전 고혈압, 허혈성심질환
신장내과	한상웅 이주학 이은영	월, 목, 금 화,수, 토(1,2,3주)	화, 수 월, 목 금	만성콩팥병, 당뇨병 콩팥병, 고혈압, 사구체신염, 투석요법 특발성부종, 전해질이상질환, 만성콩팥병, 고혈압 만성콩팥병, 고혈압, 사구체신염
내분비대사내과	이창범 유성훈	화~금, 토(1~2주) 월, 금, 토(3주)	월, 수 화, 목, 금	당뇨병, 갑상선질환, 비만증 당뇨병, 갑상선질환, 골다공증, 일반내분비질환
류마티스내과 만성통증 맞춤클리닉▲	이혜순 방소영 안수민	월, 화(초), 수, 토(3주) 월(초), 화, 수(초), 목, 금, 토(2주) 월(초), 화, 수(초), 토(1주, 2~3주, 초)	월(초), 화, 수(초), 목 수 월, 화~목(초), 금	류마티스관절염, 퇴행성관절염, 통풍, 루푸스, 베체트병, 만성통증 류마티스관절염, 퇴행성관절염, 통풍, 루푸스, 베체트병, 만성통증 류마티스관절염, 퇴행성관절염, 통풍, 루푸스, 베체트병, 만성통증
호흡기내과	김태형 문지용 박태선	월, 수, 목, 토(2주) 화, 금, 토(1,3주)	화 월, 목 수, 금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결핵, 폐암, 중환자관리 만성기침, 천식, 만성폐쇄성질환, 결핵, 폐암 중환자치료, 호흡부전, 폐렴, 기관지내시경
중환자실	박태선	월~토	월, 화, 목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혈액종양내과	최정혜 원영웅	화, 목, 토(2주) 월, 수, 금, 토(1,3주)	월, 수, 금 화, 목	혈액암, 빈혈 및 혈액질환, 고형암 혈액암, 빈혈 및 혈액질환, 고형암
감염내과	김지은	목, 토(2주)	월, 화, 수	감염질환, 불명열,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해외여행자, 예방접종
소아청소년과	김창렬 오재원 문진화 이영호 김남수 김자혜 최영진	화, 수, 금 화, 목, 토(2주) 월, 수, 금 월 수, 토(1주) 월, 목, 토(3주)	화 월, 목 월, 수 금 수, 목, 금 화, 목, 금	신생아학, 영아신경발달 및 질환 소아호흡기, 알레르기 및 면역질환 소아신경질환 소아혈액종양 소아심장질환 소아내분비질환, 성장, 의학유전질환 소아호흡기질환
신경과	이영주 이규용 고성호 최호진	화, 금 월, 수, 금 월, 수, 목 화, 목, 토	화, 목, 금 월, 수 월, 수 월, 목	뇌졸중, 치매, 파킨슨병, 어지러움증, 하지불안증후군 뇌졸중, 두통, 말초신경병증, 하지불안증후군, 손저림 뇌졸중, 신경퇴행성질환(치매, 파킨슨병) 치매, 뇌졸중, 두통
정신건강의학과	박용천 김대호 최준호	월, 화(보건소 제외), 목 화, 목, 토(1,3주) 월, 수, 금, 토(2주)	월, 목 화, 수(클리닉), 금 수	문화정신의학, 정신분석, 정신치료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불안장애 조현병, 조기정신병, 조울증, 우울증, 신경영상학
신경외과	김충현 김재민 정진환 류제일 한명훈	월, 금, 토(2주) 수, 목, 토(1주) 월, 토(3주) 화, 수 목, 금	화, 수 월 화, 목 금 월	뇌종양, 뇌졸중, 척추 및 말초신경질환 뇌혈관질환, 두개저부뇌종양 및 뇌동맥류, 뇌종양 두부외상, 뇌혈관질환, 뇌혈관내수술 척추질환(최소침습척추수술), 척수종양, 두부외상 뇌종양, 뇌정위기능, 두부외상
흉부외과	이철범 노선균 남승혁	월, 목 화, 수 금	월 화, 목 수, 금	폐질환, 식도질환, 흉부외상 심장질환(관상동맥, 심장판막질환, 심장종양), 대동맥 및 혈관질환(동정맥류, 말초동맥질환, 하지정맥류 등), 흉부외상, 기흉 흉강경수술, 폐암, 식도암, 양성폐질환, 기흉, 다한증, 종격동질환, 흉부외상, 흉곽기형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정형외과	김영호 박예수 박기철 이정일 송종훈	월, 수, 금 수, 금 화, 목, 토(3주) 월, 토(1주) 화, 토(2주)	수 월 금 화, 금 월, 목	인공관절 치환술, 골절(고관절 및 슬관절) 퇴행성 및 골다공성 척추질환, 척추기형 사지골절, 골반골절, 사지변형교정술 수부 및 손목관절, 미세재건외과, 말초신경마비 견관절, 주관절, 외상
산부인과	정언석 고아라	월, 수, 금, 토(3주) 화, 목, 토(1주)	월, 수 화, 목, 금	단일공법 복강경수술(난소혹, 자궁축), 부인암, 산모, 고위험산모 복강경 수술, 부인종양, 부인암 (자궁경부, 난소, 자궁내막), 산모
성형외과	최승석 이장현 장정우	월, 수, 금 해 외 화, 목, 토	월, 금 장 기 연 수 화, 목	말초신경 및 수부재건, 유방성형, 미용성형 안면외상, 욕창재건, 피부종괴, 미용성형
외과	남영수 이홍기 박훤겸 김한준 김민규 최민영 윤정아 김현일	월, 수 월, 수, 금, 토(2주) 목 화, 금, 토(3주) 화, 금 목 목 토(1주)	목 화, 금 목 수 월, 화 월, 금 수, 금	대장항문질환, 유방암, 갑상선질환 혈관(대동맥, 경동맥, 당뇨발), 이식, 간담췌질환 간담췌질환, 복강경수술 간담췌질환, 복강경수술, 탈장 상부 위장관 질환, 복강경 위절제술, 탈장 유방, 갑상선질환 대장항문질환 상부 위장관 질환, 복강경 위절제술, 탈장
안과	조희윤 성민철 강민호 임한웅 신용운	화, 목 수, 금 월, 토(2주) 토(1, 3주) 월, 금, 토(2주)	목 월, 수 화, 금 화 수	망막 및 유리체질환, 당뇨망막변증, 황반변성, 포도막염 녹내장, 백내장 외안부질환, 굴절, 백내장 안성형, 사시, 소아안과 망막 및 유리체질환, 당뇨망막병증, 황반변성, 포도막염
피부과	유희준 김정수 강호송	월, 화, 금 수, 목, 토 화	화, 목 월, 수 수, 금	무좀 및 조갑백선, 피부알레르기질환 피부미용, 피부외과, 소아피부질환 피부미용, 일반피부과질환
이비인후과	이승환 정진혁 지용배 정재호 유한석 김종민	월, 수 화, 금 월, 목 토 목 화, 수, 금	목 수 화 월, 수, 금 월, 화, 목 금	만성중이염, 난청, 이명, 어지럼증, 인공와우이식 부비동염, 비중격질환, 코막힘, 알레르기비염, 코골이, 코성형 두경부종양, 갑상선종양, 경부종물, 음성장애 어지럼증, 난청, 이명, 중이염 이명, 어지럼증, 알반 및 소아이비인후과질환 비부비동염, 비중격 만곡증, 알레르기 비염, 일반 이비인후과 질환
비뇨기과	최홍용 문홍상 이승욱 김규식	화, 목 수, 토(3주) 월, 금, 토(1주) 월, 토(2주)	목 월, 금 화 수	요로결석, 전립선질환, 요실금, 비뇨기종양 전립선비대증, 전립선질환, 배뇨장애, 요실금 복강경수술, 비뇨기종양, 남성과학 요로결석, 소아비뇨기질환
재활의학과 만성통증 맞춤클리닉▲	장성호 한승훈	월, 금 화, 목	월, 수 화, 목, 금	근골격계재활, 스포츠의학, 노인의학 소아재활클리닉, 근골격계재활(요통, 오십견, 관절염), 스포츠 손상, 뇌신경 재활
치과	박원희 김윤영	월~목, 토(1,3주) 화, 금, 토(2주)	수 월, 화, 목, 금	보철, 임플란트, 틀니, 미백, 턱관절질환 보철, 임플란트, 틀니, 미백
통증클리닉	심재항	월, 수, 금	월, 금	요통, 관절통, 만성통증, 암성통증, 통증질환
핵의학과	김지영		화	종양핵의학
직업환경학과	장태원		화	직업성질환, 업무관련성평가, 업무적합성평가

* 2017년 1월 기준이며, 시간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진료는 각 외래로 문의 바랍니다.

‘아시아의 의료허브’를 향해

2017년에도 도약은 계속됩니다



2017년에도 한양대학교의료원의 힘찬 발걸음이 계속됩니다. 지난해 의료 적정성 평가 위암, 유방암, 대장암, 폐암 분야 1등급을 비롯하여 한양대학교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선정, 의료 질 평가 ‘최상위 1등급’ 획득,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의 신관 신축 등의 다양한 성과를 바탕으로 신년에는 더 큰 무대를 향해 나아갑니다. 앞서가는 연구와 선진 의료기술로 세계와 교류하며 아시아의 의료허브로 발돋움해 나갈 것입니다.

한양대학교의료원
HANYANG UNIVERSITY MEDICAL CENTER